

찾

LAW SCHOOL

미 래 의 희 망 로 스 쿨

2019. JUL + AUG



2020 학 년 도 입 학 가 이 드 수 록



- KNU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CAU 중앙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The future depends on what we do in the present.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 1869~1948)



Contents



- 004 special report
- 010 power interview _ 강영희 판사
- 014 letter from _ 김우중 변호사
- 016 real story _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장대근
- 018 hot issue
- 020 contest _ 서울 모의국제상사중재대회
- 026 happy lawschool _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우 학생
- 028 opinion _ 오수근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_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해진 교수
- 034 aks news

2020학년도 입학가이드 | chapter 1

- 036 이사장 인사말
- 037 로스쿨 개요
- 038 교육과정 소개
- 040 장학금 제도
- 042 특별전형 /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 044 실무교육

2020학년도 입학가이드 | chapter 2

- 045 2020학년도 LEET 원서접수 결과
- 046 2020학년도 LEET 채점 결과
- 047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사항
- 048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 052 학교별 입학전형

2020학년도 입학가이드 | chapter 3

- 077 변호사시험
- 078 변호사 연수 및 검사, 재판연구원, 법관 임용
- 079 로스쿨 졸업생의 연도별 취업 현황
- 080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 진출

2020학년도 입학가이드 | 붙임자료

2019. jul + aug

발행일 2019년 8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김순석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서는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로스쿨에서는 시간이 쟁점으로 달아난다. 학생들은 달아나는 시간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전력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때때로 놓치는 것들이 생긴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지만, 멈출 수 없는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같은 시간을 달려온 현직 변호사 4인이 모였다. editor. 박소희

로스쿨에 다닐 때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에 대하여

지난 7월 법학적성시험(이하 '리트')이 시행됐다. 리트 성적이 본인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현 시점에서 로스쿨 입학에 대해 무엇을 공략해야 하나? 현실적인 조언을 해달라.

박상수 리트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요소(리트, 학점, 공인 어학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논술) 중 하나일 뿐인데, 리트로 인해서 입시 전반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정량적 요소가 부족하더라도 정성적인 요소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조원익 같은 의견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리트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간 입학자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성적인 평가도 배제할 수 없다. 정성평가에서 본인이 '법조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등 법조인으로

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박병철 고백하건대 나의 리트 점수는 두 자릿수였다(웃음). 하지만 학교에서 리트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토익과 자기소개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실제로 함께 공부했던 친구 중 리트 62점으로 합격한 사례도 있어, 리트 점수가 낮다고 좌절할 필요 없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전 별 시중에 너무나 많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모범답안 예시가 돌아다니지만, 여기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희망하던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했을 경우, 1학년 재학 중에 반수를 할 만큼 학생들이 출신 로스쿨을 중요하게 여긴다. 졸업 후 사회에서 느끼는 로스쿨별 서열이 존재하나?

박상수 앞에 앉아 계신 박병철 변호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웃음). 박 변호사님은 나보다 기수도 낮고 소위 말하는 SKY로스쿨 출신도 아니지만, 현재 개업 변호사로서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막연한 가능성에 승부를 걸기 보다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본인이 잘 해야 빛날 수 있다.

전 별 나 역시도 SKY로스쿨을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에 나와서 단 한번도 학벌이 장애가 되어 수임을 못 하는 등의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 학

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변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먼저 현업에 뛰어드는 게 중요하다. 졸업 후에는 실전이다!

박병철 변호사가 되고 나면 다 같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학벌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의뢰인이 학벌을 보고 따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

조원익 변호사의 자질은 필드에 대한 이해와 쟁점 해결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많고, 인맥이나 사교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리나라 로스쿨의 수준 차이는 사실 조금 더 똑똑하거나 조금 더 높은 점수

를 받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른 것이지, 로스쿨 자체의 수준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학벌이 첫인상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첫인상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박상수 로스쿨 학생들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는 '어느 학교에서 검클빅¹⁾을 많이 보낸다더라' 등의 순위에 집착하는 내용이 많이 올라온다. 반면 변호사들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하면 개업해서 성공할 수 있나?', '영업 비결은?', '매출 올리는 법' 등 변호사로서의 성공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소위 말하는 '좋은 로스쿨'은 대형로펌 입사에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변호사로서의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학생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합격률'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공부해야 합격하는지 비법을 공유해 달라.

1) 검찰, 로클릭, 빅 로펌을 일컫는 말.



(왼쪽부터) 박병철 변호사, 전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조원익 변호사

전 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후배들에게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수님들의 수업은 정확하게 맥을 짚을 뿐만 아니라, 결국 변호사시험도 그분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수업을 충실하게 따라가면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진다. 특히 별도의 스터디를 하지 않아도 기록형 수업시간에 문제를 푸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박병철 처음부터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없듯이 학년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기본서가 많이 두껍고, 얇은 책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1학년 때는 기본서 위주로 충실히 공부해야 한다.

박상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둘 다 경험해 봤는데 사법시험의 경우 깊이가 깊은 반면 변호사시험은 공부할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광범위하게 공부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기본을 쌓되 공부량을 줄여 나가 마지막에는 얇은 노트 한 권씩만 남겨야 한다. 그래야 붙을 수 있다.

조원익 사법시험에 비해 변호사시험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처럼 실무적인 관점 즉,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묻는다. 기본서를 보든 요약서를 보든 하나의 사건이 ‘어떤 결론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조금만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헤맬 수 있다.

과도한 학습량, 시험 스트레스 등으로 슬럼프에 빠지는 학생들이 많다. 슬럼프를 현명

하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박병철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태함으로 인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의 상황과 합격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전 별 3학년 때 제일 힘들었는데, 기독교법률가회에서 ‘8시간 공부법’을 배우게 됐다.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잡고 스톱워치로 재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다. 당시 일주일에 40시간을 채우면서 공부했었고, 무엇보다 서로 격려하면서 했기 때문에 슬럼프도 잘 이겨내지 않았나 싶다. 시간이 날 때마다 미술관에 들러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도 도움이 됐다.

조원익 슬럼프의 원인은 집중이 안되기 때문인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체력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이 빠지는 거다(웃음).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100m 단거리 달리기 아닌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호흡과 보폭으로 뛰어야 할지 미리미리 연습해야 한다.

박상수 공부 이외의 것을 ‘플랜B’로 계획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됐다. 플랜 A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재학 중에 창업 공모전도 나가고, ‘로이너스’라는 커뮤니티도 만들었다. 공부와 병행하는 수준의 활동이었는데, 오히려 공부에 대한 집중력과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학비가 고민되는 후배들에게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준다면?

박병철 로스쿨 입학 당시 자녀도 있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전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 중 학비 조달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간혹 보았지만 이들의 결과가 크게 좋지 않아,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이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파산했다는 사례는 아직 못 봤다.

박상수 나 역시 학자금 대출을 선택했다. 성적 장학금은 딱 한번 받았는데, 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액 학자금 대출로 다녔다. 졸업을 할 때 되니까 학자금 대출금 5,600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으로 빚이 7,600만원 정도 됐다. 만약 당시에 집을 한 채 사려고 했어도 학자금 대출금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대출을 했어야 했고, 무엇보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보장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는 것은 적어도 나의 노력

에 달린 일이라 예측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사법시험 공부는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도 없지만 로스쿨에서는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진일보한 제도라고 본다. 대출금은 변호사가 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전액 상환했다(웃음).

조원익 장학금을 받기는 했지만 전액을 받지는 못해 조교 생활을 하면서 학비를 충당했다. 학비가 고민되는 학생이 있다면 교수님과 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학교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자세도 중요하다.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로스쿨 학생들이 학교 수업보다 학원 강의에 의존하기도 한다. 학원 강의의 필요성 여부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로스쿨 커리큘럼만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이 가능한가?

박상수 3학년 기록형 수업 시간에 매주 시험과 강평이 이어졌다. 공·형·민 모든 과목에서 매주 기록을 하나씩 봤더니, 띄엄띄엄 배웠던 법적인 지식들이 하나로 엮어지고 완성되기 시작했다. 사교육 기관에서는 이러한 로스쿨 기록형 수업을 절대로 커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재나 강의의 질도 따라올 수 없다.

조원익 내가 졸업한 연세대 로스쿨을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수업만 충실히 받아도 충분히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로스쿨이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해, 로스쿨간 상호 교류나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 사교육은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의

미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병철 로스쿨마다 합격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사교육이 필요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만으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답을 하고 싶다. 로스쿨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전 별 1학년 때부터 교수님 수업을 아예 배제하고 동영상 강의를 듣는 친구도 있었고 ‘누구의 인강을 들어야 붙는다더라’ 하는 소문도 많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로스쿨의 커리큘럼이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학원 강사가 아니라 로스쿨 교수님들께서 출제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박상수 덧붙이자면 로스쿨에 다니면서 학점에 대한 압박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점은 생각보다 변호사가 되는 것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필드에서는 ‘변호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요구할 뿐, 누구도 ‘학업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성적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 다닐 때는 듣고 싶은 수업, 좋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교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조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전 별 과거에는 송무와 자문 분야의 진출이 집중되었다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실질적으로 공익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도 대거 늘어났고, 무변존에도 변호사 사무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변호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원익 기존의 법조계는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많았지만 로스쿨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1년차든 10년차든 차수에 따라 의사 결정이 바뀌는 일은 없다. 로스쿨 내에서도 사회 경력이나 경험이 다양하다 보니 기수문화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이다. 더욱이 변호사들끼리 상호 존중하고 자유로운 의사 토론이 가능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문화가 연수원 변호사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상수 ‘개천의 용 프레임’ 즉, 변호사가 기존의 ‘용’의 지위에서 내려온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위에서 군림하는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로스쿨에 다닌다고 하면 세상이 걱정해주는 지위일 정도다(웃음). 사회의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직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병철 과거에 공부만 하다가 변호사가 됐던 시절과 다르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니 기존의 전문 영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레드오션, 불황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현재의 법조시장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변호사 수에 대한 생각은?

박상수 변호사가 '개천의 용'이던 시절에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수많은 법조 유사 직업들이 탄생했다. 비슷한 예로 의료계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지(限地)의사 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1986년에 의대 교육을 수료하면 의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의사 제도에 통합되었다. 마찬가지로 법조계를 둘러싼 수많은 유사직역을 통합하고 이들에게 로스쿨 교육을 수료하게 해 법조인의 직역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조원익 사실상 유사직역이 할 수 없는 변호사의 고유 영역은 '형사' 분야 밖에 없다고 본다. 형사 사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다 보니 변호사 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단순히 변

호사 인원이 많다는 수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병철 변호사 수에 대한 논란은 사람이 줄어들면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일정 수입료를 변호사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수가 줄어든다고 1인의 수입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 별 '변호사 수가 많으니 줄이자'는 것은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다.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여전히 많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영역에 얽매어 있는데, 한정하고 있으면 한계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척해야 한다.

로스쿨 재학 시절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에 대하여.

전 별 로스쿨에 다닐 때는 '내 인생의 마지막 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체력을 다 쏟아 부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된 지금이 체력적으로 훨씬 더 힘들고, 시간도 부족하다(웃음). 힘들겠지만 변호사가 된 후에도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박상수 생각보다 변호사시험에 나오지 않는 과목들이 막상 실무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로스쿨 재학 시절 8명의 동기들과 개인정보 보호법 수업을 수강했는데, 변호사가 된 후 개인정보 관련 사건이 많아서 큰 도움이 됐다. 번시 과목에만 매몰되지 말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해서 그와 관련된 공부를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조원익 타인과 자신을 쉽게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로스쿨에서는 옆 자리에 앉은 학생과 나의 실력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졸업 후 원하는 자리에 간 사람들의 현재가 모두 행복한 모습은 아니다. '행복'이 성적이나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님을 학교 다닐 때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웃음).

박병철 로스쿨 재학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학우들 간의 관계도 다 어렵다. 하지만 힘들게 투자한만큼 변호사가 되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 그러니 지금의 공부도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면 큰 보답이 있을 테니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박병철 변호사(44)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6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법률사무소 다민 대표 변호사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 現 대한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박상수 변호사(40)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대한항공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위원장



전별 변호사(35)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4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법무법인(유) 한별 변호사
- 現 K&P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조원익 변호사(33)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3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마포구청 법무팀장
- 現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위원

법관은 사건 당사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되 따뜻한 시선으로 인간과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눈을 맞추고자 노력한다는 강영희 판사가 오늘도 재판정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다.

“사건 당사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때로는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재판을 하고 싶어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영희 판사

방송사 기자를 하다가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기자로서의 삶이 즐겁기는 했지만 적성과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보 경쟁 속에서 시간에 쫓겨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특히 깊이 있는 취재를 하지 못해 나부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다른 기자들보다 기사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사 분량도 길어서 선배들로부터 ‘지금 논문쓰냐’는 말도 종종 들었다(웃음). 그래서 다른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고민 끝에 사안에 대해 보다 더 균형감 있게 접근할 수 있고, 분쟁을 직접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시 기자를 하더라도 법 지식이 있으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깊이 있는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로스쿨 생활은 어땠나?

로스쿨 진학 이전에는 법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소위 나와 같은 ‘생비법’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컸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시험 기간에는 조금 독하게 학습에 매진했다. 감사하게도 법 공부가 적성에 잘 맞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직장생활을 할 때 누리지 못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로스쿨 생활을 했다. 인간사의 가능한 분쟁상황에 대해 합리적이면서도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과거 ‘부부 재판연구원’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부부가 모두 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남편과는 로스쿨 3학년 때 민사재판실무 조별과제를 하면서 가까워졌고, 그룹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매력을 느꼈다. 가령 내가 어떤 법적 쟁점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남편만이 내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답을 해줘서 감동한 적도 있다(웃음). 같은 로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데이트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었던 점이 가장 좋았고,

남편의 경우 나를 만난 이후에 내 학습량에 맞춰 더 많이 공부해 성적이 오르기도 했다. 일찍이 법원으로서의 진로를 결정한 남편이 나의 진로 결정에도 많은 조언을 해줬고, 법원을 목표로 한 이후에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 줬다. 졸업 이후 재판연구원 생활도 함께하고, 현재는 법관 생활도 함께하고 있는데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각을 제공해주어 사안 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진로 중 ‘법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학 때마다 로펌과 검찰, 법원 실무수습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내 적성과 성향이 법원과 가장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세우는 검찰과, 피고인이나 재판 당사자의 말

에 귀 기울여 주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지만, 어느 한쪽에 서기보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선언하는 법관이 되고 싶었다. 법원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도 법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법원에서 관장하는 사건의 종류와 유형이 정말 다양하다. 판사의 업무를 비롯해 현재 어떤 사건을 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사의 업무는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이 끝나면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합의부의 경우, 재판장은 재판진행, 배석판사는 판결문 초안 작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재판장인 부장님



은 재판진행을 위해 속행 기록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이 끝나면 결심 기록 검토 후 합의, 판결문 수정 등의 업무를 하고, 배석판사는 결심기록 검토 및 재판부 합의를 거쳐 판결문 초안 작성, 판결문 수정 등의 업무를 한다.

나는 현재 노동 전담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민사합의 사건은 소송물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하고, 노동사건은 임금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나 부당징계 등으로부터의 구제를 청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나의 경우 배석판사를 하고 있어서, 업무의 대부분이 결심된 기록을 보고 재판부와 합의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일이고, 증인신문이 있는 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속행기록도 검토한다. 선고가 일주일에 한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석판사의 업무도 '결심 기록 검토 및 합의, 판결문 초고 작성, 판결문 수정, 속행기록 검토 등'이 일주일 단위로 반복된다.

업무를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판사 업무가 고되고 어려운 만큼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민사의 경우 오래된 분쟁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형사의 경우 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형벌권을 행사하여 사회정의를 세웠다는 점에서 당연히 큰 보람이 있다. 특히 오래된 사건일수록,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 분쟁 상황을 겪으면서 그만큼 힘들어하고 지쳤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건이 종결되면 더욱 보람이 있다. 또 내가 내린 결론에 대해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했다는 점과 나의 판결로 양 당사자를 어느 정도 설득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있다. '양심에 따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개인의 주관이 배제된 판결이 가능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께서 법관의 양심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관과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야 한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

법관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을 해석하고 사안을 포섭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일을 하는데, 법을 해석하는 과정과 사실을 확정하여 포섭하는 과정에 법관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주관, 소신이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법관은 그 개인이 잘나서 법관이 되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규범으로서의 양심도 국민의 법감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 합리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이 배제된 판결이 가능하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다만 법관은 자신이 행사하는 재판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나의 판단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생각하며 판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관은 사무실 안에서 기록을 열심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실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나 서적 등 간접경험을 통해 사회변화나 국민의 법감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 판결은 무엇인가?

내가 주심으로서 처리한 사건 중에서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는데,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그 회사가 대기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전의 다른 유사 사례들보다 다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또, 단체 카톡방에서의 다소 가벼운 성적 농담도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각 사건은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이든 사회적 법익에 관한 것이든 모두 의미있고 중요하다.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법원 법관의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가 평균 678건에 달했고 이는 일본이나 독일의 판사들

이 처리하는 사건의 2~3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워킹맘으로서 과도한 업무량을 체감하나?

업무량이 적지는 않은 편이다. 특히 나의 경우에는 기록을 꼼꼼하게 보고 유사 판결례를 많이 찾아보려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데, 일이 몰릴 때에는 매일 12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나를 대신해 아이들을 보살피시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법원도 지난해 판사 과로사 사건이 있는 이후에는 조금씩 변해가는 분위기이다. 야근하는 횟수와 정도가 조금은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전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판사가 가져야 할 전문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판사는 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면과 증거를 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건전한 법 상식에 맞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만큼 전문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법관은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네럴리스트여야 한다. 다만, 조세나 지적재산권, 노동 분야 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사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문성을 토대로 획기적인 판결을 하여 새로운 법리를 정립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분야 사건이 아니더라도, 증거로 회계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사안 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 언어 쪽에 능력이 있으면, 우선 사건 해결에 있어 다른 나라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한 국제연수나 국제기구 파견 등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판사가 되고자 하는 로스쿨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 준다면?

판사 일이 너무나도 보람되고 뜻깊은 일이고, 또 좋은 동료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많은 후배님들이 법원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셨으면 좋겠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뻔한 얘기지만 공부를 열심히

히 해야 한다(웃음). 졸업 후에는 특정 쟁점에 관한 리서치를 할 수 있을 뿐, 학교 다닐 때처럼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쪽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로스쿨 3년은 졸업 후 일을 할 때 필요한 법지식의 기본 밑천을 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후회 없이 공부에 푹 빠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판사를 꿈꾼다면 판사로서의 사명감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린다. 법관은 당사자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여 일정 처분을 내리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벼랑 끝에 서있는 상황과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판사의 한마디 말과 판결 결과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너무나도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공부 잘하고 똑똑한, 그러나 법관직에 대해서 별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법관직을 뜨거운 가슴에 품고 고민하며 이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분들이 법원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향후 계획은?

법관에 임용되면서 겸손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지니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법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법관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사안을 재구성하고 법에 따라 판단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오판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를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사안을 보는 통찰력, 법리에 대한 지식 등을 토대로 잘 판단하고, 한편 재판 절차 및 판결에 있어서 당사자들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때로는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재판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법관이 되었다.

향후 계획은 이러한 포부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일단은 배석판사로서 잘 판단하고 판결문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후 단독판사 또는 부장판사로 재판진행을 하게 되면 재판 절차적인 면에서도 이와 같은 포부를 이루며 좋은 재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 판사 재판 참 잘한다. 판결도 납득이 된다'라는 평을 들으면 너무나 뿌듯할 것 같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라



現 효성중공업 건설사업부 사내변호사
前 법무법인 동북아 소속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5기

김우중 변호사

“여러분은 왜 로스쿨에 입학하였습니까?”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럼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떨까. 공적인 자리에서라면 대부분 자신이 입시 때 쓴 ‘자기 소개서’ 대로 답변할 것이다. 반면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가 같은 질문을 했다면, “전문직이니까”라고 답변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필자가 보기에, 변호사의 가장 큰 매력은 ‘전문직’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은 ‘나이 먹어서도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고, 자기 소신을 지키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말한다. 이러한 직업을 누가 마다할까.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소위 ‘샤’짜 직업들이 그렇다. 자기 자신이 브랜드고 사장이어야 한다. 국가에선 어려운 시험을 통해 소수에게만 전문직 자격(혹은 면허)을 부여한다. 그렇다 보니 자긍심도 생긴다. 변호사보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많지만, 변호사보다 명예롭고 자부심 있는 직업은 적다.

전문직의 ‘장점’은 스스로 판단하고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다. 전문직의 ‘특징’은 스스로 판단하고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장점’보다 ‘특징’에 주목하자. 전문직이 아닌 자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간 전문직 자격(혹은 면허)이 날아간다(법조윤리 수업에서 배웠을 것이다). 전문직 자격의 무게는 그렇다.

그런데 로스쿨에 온 고학력 고성적자들 대부분은 남의

말을 지나치게 잘 들어온 듯 싶다. 로스쿨에 오기 위해서는 모범생이어야 했고, 모범생들은 대부분 부모님,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너무 순순히, 너무 착하게만 살아왔다. 그러나 전문직은 다르다. 변호사는 남의 말에 순응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기 생각을 밀어붙일 줄 알아야 한다. 그 연습을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어서 하려고 하면 늦다.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남의 말에 대해 ‘너가 뭘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라는 질문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폭언을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의뢰인, 직장상사, 재판정의 판사까지... 이 질문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많은 사회생활 선배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소위 ‘후러치기’ 하면서 흔들어댈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을 다니면서 ‘모범생 콤플렉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라니, 뜯구름 잡는 소리로 들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뒷담화에 상처받지 말고 학업과 인간관계를 비롯한 로스쿨 생활에 전념’했으면 한다(여기서 말하는 뒷담화는,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헐뜯는 행위를 말한다). 로스쿨 생활은 시험 기간의 집합이다. 변시 합격률은 가혹하게 낮다. 이런 살풍경(殺風景)에서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민해진다. 서로 다투고 헐뜯기 쉽다. 아마 로스쿨을 다니면서 한 번도 뒷담화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뒷담화를 하지 말자’는 허황된 구호다. 그 대신 ‘뒷담화를 어쩌다 들어도 상처받지 말자’고 말하고 싶다. 누구나 한 번쯤 뒷담화를 하므로,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욕하는 이야기를 건너 건너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무시’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당신의 뒷담화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다. ①당신의 친구가 아니거나 ②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당신을 미워하고 있던 경우다. 진실한 친구라면 뒷담화를 하지 않고, 당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앞에서 지적한다. ①친구가 아닌 사람? 앞으로도 인생에서 볼 일이 없다. 당신이 주인공인 영화에서 엑스트라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깔끔하게 무시해라. 그런 일에 신경 쓰느니 오늘 뭘 먹는지 고민하는 게 인생에 더 이롭다. ②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 뒷담화를 했다? 이제 친구가 아니다. 그냥 스쳐가게 두어라. 어차피 졸업하면 서로 볼 일 없고, 어쩌다 본다고 해도 당신에게 영향력이 없다. (여러분이 변호사가 된 뒤에는 상급자의 앞담화가 시작된다. 뒷담화에서 상처받기 시작하면 사회생활이 암담해진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이 있다(여기서 무소는 뿔이 하나인 인도 코뿔소를 가리킨다). 원시 불교 경전인 ‘숫파니파타’에 실린 ‘무소의 뿔’편에 나오는 문장이다. ‘무소의 뿔’편을 거칠게 요약하면, 수행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인연을 만들지 말고, 나쁜 벗들을 만났을 때는 차라리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에 ‘공부’를 대입해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차피 공부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다. 왜냐? 정말 당연하게도, 변호사 시험은 혼자서 쳐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로스쿨 공부는 스터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졸업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자주 마주칠 테니 로스쿨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한다. 수업별 스터디도 학점에 큰 도움이 된다. 필자도 3년 내내 스터디를 같이했던 동기들과 지금까지 친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부는 혼자 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된다. 교우관계와 스터디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역할일 뿐, 학점과 변호사 시험 성적은 개인의 공부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숫파니파타’에서 말하는 ‘불교식 수행’과 ‘로스쿨 공부’는 같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스터디원을 만

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대단한 행운이므로 함께 변호사 시험까지 가도 좋다. 그러나 서로의 공부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차라리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 필자가 다니던 로스쿨에서도, 문제없이 운영되던 스터디들이 3학년이 되자 서로의 공부 방법은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공부시간과 등하교 시각만 관리하고 함께 밥이나 먹는 ‘밥터디’로 전환되었다. 로스쿨 2년 다녀 보고, 각자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태도는 변호사가 되는(become)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에도(behave) 도움이 된다. 변호사는 ‘전문직’이므로 경력이 중요하네, 경력이야말로 누가 정해주지 않는다. 정답이 없으므로,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는 자신이 정해야 한다.

현 로스쿨 체제에서 학생들의 당면 목표는 ‘변호사 시험 합격’이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도 현실이 그렇다.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은 다양하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조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3년간 공부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지속가능한 공부를 위해 스트레스 관리법을 추천하려 한다. 바로 ‘걷기’다. 신체적 장애가 없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평소에도 하는 운동이다. 그걸 좀 더 자주 하면 된다. 공부하다 집중이 안되면, 책상을 박차고 나가서 걷자. 어디를 걷든 상관없다. 언제 걷든 상관없다. 공부하던 중간에 걸어도 되고, 밥먹고 소화시키며 걸어도 되고, 등하교 사이에 우회하는 길을 추가해서 걸어도 된다. 30분만 걸으면 영커있던 머리가 맑아지고, 이해되지 않던 판례도 저절로 이해가 될 것이다. 진짜다. 변호사가 된 뒤에도 이 방법은 유효하다. 변호사가 된 뒤에도 두뇌활동이 중요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로스쿨 때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결국 스트레스 관리법은 꼭 하나씩 있어야 하며, 평생을 두고 만들어 가야 한다. 만약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다면, 자신있게 ‘걷기’를 권한다.

이제 앞서 이 글의 제목이 이해될 것이다. 여러분은 전문직으로 경력을 쌓아가기 위해 로스쿨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방법도 전문직의 특성에 맞추어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라. 모든 것은 자기 안에 있다.

건강한 로스쿨 생활 - Routine 찾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장대근

들어가며

루틴이라는 말이 있죠. 사전적으로는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통상적인 순서와 방법」이지만 요즘 우리는 「어떤 것의 최상의 수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이상적인 상태를 갖추기 위한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이나 절차」의 뜻으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변호사시험은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다음 응시자격을 취득하여 합격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때문에 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3년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완주하는지가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첫 시작, 1월

합격소식을 받고 설레다 보면 어느덧 1월이 됩니다. 합격만 하면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이 있다가도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로스쿨의 3년 과정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기본3법을, 2학년 때는 소송법과 상법, 행정법 등을, 그 이후에는 실무과목이나 연습과목을 위주로 하여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배워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막대한 양과 난이도를 자랑하는 ‘민법’은 객관식·사례형·기록형 모두 3년간 넘어야 하는 큰 산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1학년이신 11기 원우분들은 예습을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민법 뿐만 아니라 형법, 헌법까지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혼자 책을 읽고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보는 등 미리 공부가 된 상태로 입학하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각 로스쿨 측에서도 프리로 과정을 운영하여 비법학사분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있으며 전남대학교에서는 프리로 과정과 더불어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선배들의 조언과 정보전달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학습을 하며 법에 친숙해지다 보면 3월, 첫 학기가 시작됩니다.

루틴 찾기

학기가 시작되면 눈 깜짝할 새 중간고사입니다. 며칠 밤을 새면서 시험이 끝나면 육체적·심리적으로 힘들면서도 ‘앞으로 3년간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 2년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

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흔히들 공부와 함께 강조하는 것이 ‘건강’일 것입니다. 이에 뒤따르는 것은 운동과 체력관리구요. 그래서인지 제가 다니는 로스쿨에서는 야구, 축구, 농구, 달리기 등 운동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로스쿨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떤 종류의 운동이라도 꼭 공부와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았던 증상들이 소화불량, 체력저하, 체중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도 많아지고 공부량도 많아지면서 체력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어떤 운동이 가장 재밌고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공부시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무슨 운동이 적합한지 자신만의 체력관리법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러닝메이트 만들기 에 대한 부분입니다.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이라는 큰 산을 넘기 전에 학교시험,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법전협 모의고사 등 수많은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같이 수업을 듣고 식사, 스터디, 운동 등 생활을 같이 하는 메이트와 함께라면 힘든 생활도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특히 학교진도와 자기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일정이 겹칠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때 스터디 활용으로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면 자칫 헤이해질 수 있는 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도별 객관식 스터디, 사례스터디 등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 공부스타일은 모두 다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늦게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든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따금씩 하루 공부를 마치고 마음편히 맥주 한잔 곁들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모두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취미 생활입니다. 간혹 공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문화생활이나 스트레스 해소 시간마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치를 못 채우거나, 조급함이 들다 보면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다시 ‘리프레쉬’할 마음의 여유마저 잃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혼자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 1회 야구를 하면서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를 풀고, 가끔 심야영화를 보면서 일상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다음날의 집중력을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좁은 정독실(혹은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다 보면 누구나 지치기 마련입니다. 또한 순수하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오래 앉아있는 것에 안주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부시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얼마나 잘 쉬는 것이 얼마나 잘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갖는 건전한 취미 생활들이 공부할 때 더욱 집중하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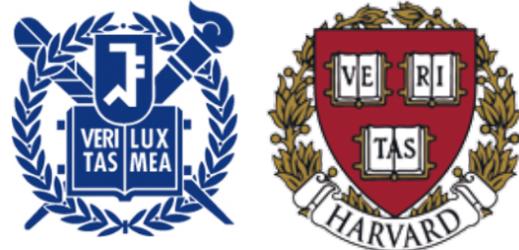
위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면 자신만의 ‘루틴’이 생깁니다. 우리 시험은 선택과목을 포함한 8과목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누어서 총 5일동안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혹자는 단군 이래 가장 높은 난이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로3과정을 겪고 있는 저를 비롯한 동기들을 보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막중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 반면, 외부적인 요인들로 계획이 틀어지거나 공부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때 더 큰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험 때문인지 모두가 힘들어하는 로스쿨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루틴이라는 명목하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언제 일어나서 언제까지 공부할건지,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쉬어야 할지, 무엇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공부에 집중이 더 잘되는지 등 자신만의 「어떤 것의 최상의 수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이상적인 상태를 갖추기 위한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이나 절차」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올해 입학하신 11기부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뜻하시는 목표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issue 01

서울대학교 로스쿨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활동 교류한다

서울대학교 로스쿨과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이 이르면 내년 여름방학부터 공익법률활동 학생 교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측 학교의 학생들은 상대 학교에서 약 한달 가량 공부하며 공익 소송에 참여하거나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공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실제 공익 소송을 대리하는 임상법학교육이나 프로보노(probono)활동이 정착되어 있으며, 서울대 로스쿨 또한 공익리걸클리닉센터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므로 두 학교의 활동 교류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issue 02

문무일 전 검찰총장 모교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특강

6월 12일(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찾아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문 전 검찰총장은 1981년도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검사장, 대전지방법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7월 임기를 마치고 검찰총장직을 내려 놓았다. 이날 특강은 '검찰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약 100여 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석했다.



issue 03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시행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필수 관문 중 하나인 법조윤리시험이 지난 8월 3일(토)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시행됐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매년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제8회 시험에서 59.4%로 급락하여 난이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제9회 시험의 합격률은 95.14%로 다시 평균 합격률을 되찾았으며, 2,190명이 응시한 제10회 시험 결과 발표는 오는 9월 18일(수)에 예정되어 있다.

issue 04

충북대학교 로스쿨, 괴산 불정면에서 무료 법률상담

충북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 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적인 조연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수) 김태현 교수의 지도 아래 로스쿨 재학생 30여 명이 충북 괴산군 불정면 면사무소를 찾아 불정면 주민들을 만났다. 리걸클리닉 팀은 농촌 주민들이 평소에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이나 애환을 상담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주었다.



issue 05

로스쿨생, 현장체험... 강의실로 변한 '수원지법'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7월 2일(화)부터 12일(금)까지 전국 로스쿨에서 우수한 학생 10명을 선발해 '법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경북대 △아주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등 6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9일 동안 수원지법에서 법원 생활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지난 9일간 △그림자배심원 체험 △조정참관 △민·형사재판 방청 △형사지도관 기본 교육 △약식사건 교육 등을 받았다.

기사출처: 법률신문 2019-07-15



issue 06

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23명 검사 임용

지난 8월 1일(목)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열었다. 임관식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기념사를 비롯해 신임검사 대표의 검사 선서,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검사로 신규 임용된 로스쿨 출신 법무관 23인은 모두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향후 7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 모의국제상사중재대회 우승팀이 알려주는 국제 모의상사중재대회 관련 꿀팁 모음.zip



국제 모의상사중재대회(비엔나) 현장의 모습

국제 모의상사중재대회(The 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는 1992년에 비엔나에서 처음 시작된 대회로 국제 사법 분야에서 가장 수준 높은 모의재판 대회로 꼽힌다. 서울에서 개최된 Pre-Moot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홍콩 본 대회까지 참가한 연세대학교 팀으로부터 국제 모의상사중재대회의 꿀팁을 전수 받았다.

■ 대회의 의의

국제거래법, 국제 중재분야에 관한 서면 작성과 구두 변론의 기량을 겨루는 모의재판 대회이다.

■ 대회의 구조

1단계	2단계
서면 작성 · 각 참가팀은 영어로 신청인 memorandum 및 피신청인 memorandum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구두 변론 · 각각의 팀들에게 네 번의 구두변론 기회가 주어진다. (두번은 원고측, 두번은 피고측) · 구두변론 시간: 팀당 30분

최근 국제 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상업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제 모의상사중재대회에서는 중재분야의 서면 작성과 구두 변론의 단계를 통해 학생들이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문제로 제시된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읽고 분석하며, 관련 법률 문서를 찾아보고, 원고와 피고를 위한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고, 구두변론을 하게 된다. 대회의 문제는 중재와 관련하여 국제 상품 판매 계약에 관한 협약과 기타 상법을 포함하여 출제된다.

■ 대회의 기본 사항

Q. 등록 자격은?

A. 세계의 모든 로스쿨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도 법학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라면 가능하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자격이 있다.

Q. 등록 절차는?

A. 서류 신청 ▶ 참가비 납부(700유로) ▶ 서면 제출

Q. 팀 인원 구성은?

A. 구두 변론에 최소 2명이 참가해야 하므로 2명 이상이라면 팀 구성이 가능하다. 가장 이상적인 팀원 수는 4~6명이다.



Vis (East) Moot, Hong Kong

국제 모의상사중재대회 홍콩 대회는 Vis Moot의 자매대회로 매년 홍콩에서 개최된다. 홍콩 대회는 기본적으로 비엔나에서 열리는 대회와 동일한 문제와 규칙이 적용되지만, 참가자들은 비엔나와 아시아 대회를 별도로 등록(참가비도 별도)해야 하며, 대회의 우승자도 각각 정해진다. 홍콩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권 대회를 비엔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참가자들은 두 대회 모두 참여할 수 있다.

※ 주최 측은 비엔나 대회와 홍콩 대회에 모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각각 다른 서면을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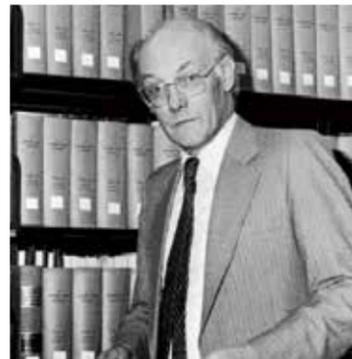


Pre-Moots

Vis moots에 대한 인기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실전 연습을 위한 Pre-Moots 대회에 도전하고 있다. Pre-Moots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개최되며, 서울에서도 매년 Pre-Moots 대회가 열리고 있다.

■ 수상

Pieter Sanders Award	가장 우수한 서면을 작성한 팀에게 주어지는 상(원고/피고측)
Werner Melis Award	
Eric E. Bergsten Award	최종 구두변론 우승 팀에게 주어지는 상
Martin Domke Award	우수한 구두변론을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 ※ 이 상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참가자는 원고와 피고를 위해 각각 한 번 이상 논쟁을 벌여야 한다.
Michael L. Sher Award for the Spirit of the Willem C. Vis Moot	어려운 상황에서 기지와 창의성을 발휘하여 극복한 개인 또는 팀에게 부여되는 상



여기서 잠깐! 대회명에 들어간 Vis는 누구?

Willem Cornelis Vis
1924-1993

국제 상업 거래 및 분쟁 해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로, 네덜란드에 있는 Leyden 대학교와 Nijmegen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Vis 교수는 1957년 유럽회의의 일원으로서 유럽 협력을 위한 일을 시작하였으며, 유엔 국제무역법무장관, 비엔나 외교회의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 판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을 채택했으며, 국제 무역법에 관한 법률과 국제 지불에 관한 작업을 하는 그룹의 의장을 역임했다.

Mini interview

서울 모의국제
상사중재대회
우승팀

연세대학교팀
정진환 학생 미니인터뷰

수상소감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대회에 나가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국제중재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각 로펌의 변호사님들, 선배님들, 김준기 교수님께서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받은 도움을 헛되게 않게 한 것 같아서 더 기쁩니다.

팀원 모두 학업에 바쁜 와중에 작년 2학기 및 겨울방학 시간을 쪼개고 잠을 줄이며 준비했습니다. 대회 준비과정에서 얻고 배운 것도 물론 많지만, 팀원들이 다음 학기 예습할 시간을 줄여 가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결과도 따라 주면 좋겠다고 혼자 조용히 가슴 졸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받고 홍콩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팀원들이 모여 대회에 출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번에 연세대학교 팀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국제학부 학·석사 학

생 연합팀으로 출전했습니다. 법전문에서 2학년 김동욱, 박성현, 이시훈, 정진환, 한예슬 학생이 참여했고, 국제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선, 정치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노효정 학생이 출전했습니다.

국제중재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도는 달랐지만 팀원 모두 국제적인 법무를 하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원우는 국제통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제중재에까지 관심을 넓혔고, 박성현 원우는 국제 기업형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시훈 원우는 학부 시절부터 미 워싱턴 D.C. 국제기구에서 인턴을 하는 등 국제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한예슬 원우 또한 국제학부 출신으로 졸업 후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김선, 노효정 학생은 미국 로스쿨 준비 중에 있고, 저 또한 국제중재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International Arbitration Association(IAA)이라는 국제중재학회가 있습니다. 통상 이 학회에서 여름에는 국제모의투자중재대회(FDI Moot)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겨울에는 국제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Willem C. Vi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참가인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겨울 제16회 국제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는 제가 학회장으로서 공고를 내고 팀원들을 모아 참가했습니다. 타학과 소속이었던 김선, 노효정 학생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국제법학회(Yonsei Underwood Law Society)를 통해 연이 닿았습니다.

이번 서울 모의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서울 모의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문제는 비엔나 및 홍콩 대회 문제와 동일합니다. 올해 경연대회의 문제는 가상의 두 회사의 경주마 정액매매계약상 발생한 분쟁을 다뤘습니다.

절차법상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매매계약서 내 중재조항에 중재 준거법(the law governing the arbitration agreement)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혹은 중재지법이 준거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제중재분야 학설 및 판례상 오랜 기간 동안 의견이 대립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매도인 측이 제출한 증거가 매수인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매수인 내 피용자로부터(이 경우 피용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수집된 것이라면, 이러한 증거를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ISD에서는 종종 문제가 되었으나, 국제상사중재에서는 최근 들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국제상사중재에서도 준용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체법상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양도를 모두 완료하기 전에 매수인 소속 국가가 해당 매매목적물에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는데, 이 때 계약상 매도인이 관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및 UNIDROIT 원칙(UNIDROI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상 가격조정(Price Adaptation)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전략을 세웠나?

1. 서면전략

위에서 서술한 대로 대회 문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므로 각 파트별로 2명에서 3명이 전담해서 리서치를 담당하고 파트에 해당하는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모두 각자 서면작성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경우에는 1) 문제를 읽으면서 법적 쟁점을 찾고 2) 인터넷을 통해서 개략적인 학계 및 실무상의 논의를 파악하고 3) 관련 서적 및 판례를 찾아 필요한 내용을 추려낸 후 4) 목차를 작성하고 5) 팀원들과 토의 끝에 목차를 확정된 후 6) 내용을 채워 넣고 7) 검토를 거쳤습니다.

통상 국제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는 학계 및 실무상 많이 논의되는 주제를 다루기에 웹상에서도 이를 다룬 내용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Herbert Smith Freehills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Global Arbitration

Review에서 쓰는 Insights가 거시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서적 중에는 Gary Born 교수의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주석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2. 구두변론 전략

서면작성 시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구두변론용 스크립트(Script)를 작성하는 하지만, 서면을 잘 작성했다고 해서 구두변론을 서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는 한 사람당 15분만 변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 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서면 작성시에 가능한 예비적 청구 및 공격방어 방법을 모두 담고, 상대방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에 대한 항변과 부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구두변론 시에는 자기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주장을, 쉽고 간결한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정말 필요한 내용만 추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표현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코칭과정입니다. 국제중재분야의 변호사, 교수, 대회 참가 경력이 있는 원우들에게 부탁해서 모의로 변론을 여러 번 해보면서 자신의 변론이 남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어떤 식으로 수정할지를 피드백 받는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면심사와 구두변론 모두 영어로 이루어져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다.

서면심사와 구두변론이 영어로 이루어져서 오는 부담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국제중재대회자체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영어실력이 아니라 법리를 어떻게 전개하고 중재

인들을 설득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회준비에 애정을 가지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는 불리함은 극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끼리 역할 분담은 어떻게 했나?

총 7명이 참가했는데, 4명이 스피커로 참가했고, 3명이 리서처로 참가했습니다. 스피커는 각각 청구인측 절차법적 문제 담당, 청구인측 실체법적 문제 담당, 피청구인 절차법적 문제 담당, 피청구인 실체법적 문제 담당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리서처는 기본적으로 절차법적 문제 담당, 실체법적 문제 담당을 각 1인씩 두고, 나머지 1인을 상황별로 유동적으로 조사할 것이 많은 부분을 맡기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지난 4월 홍콩에서 개최된 본선에도 참가했다. 참가한 소감은?

해가 갈수록 참여하는 팀의 숫자 뿐 아니라 준비도, 대회에 참여하는 자세 등이 더 진지해지는 것을 보면서 국제중재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아니라 법대가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학생들의 나이도 상당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이해도도 깊었고, 모의중재인들 및 다른 학생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태도도 매우 프로페셔널하다고 느꼈습니다. 로스쿨 밖으로 나와 해외 다른 유수의 학생들이 국제중재전문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진지한 자세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원장과 연세대학교 우승팀(왼쪽부터)

노력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면서 느낀 바가 컸습니다. 더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국제중재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언젠가는 자신이 실제로 심리절차(hearing)에서 구두변론해야 하는데, 그 기회가 고년차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면 리서처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 전략을 짜고, 직접 구두변론을 하는 것까지 압축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두변론에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 변론을 중재인들 앞에서 직접 해 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기에, 중재인들 앞에서 긴 시간동안 변론을 해보는 경험이 제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국제중재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각 로펌의 변호사님들, 선배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중재분야의 많은 전문가분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큰 자산입니다. 홍콩 본선대회 중에서도 홍콩 내 국제중재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인 변호사님들께 직접 연락을 취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분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커리어 관련해 조언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대회가 주는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로스쿨 생활 동안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큼 서로 오랜 기간 진하게 붙어있을 수 있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홍콩으로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한 컷

동료애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협업해서 일하는지 자연스럽게 가장 잘 알게 됩니다. 대회를 통해 앞으로 평생 갈 친구이자, 믿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미래의 동료 변호사 6명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10회 대회에 도전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꿀팁을 준다면?

첫 번째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 소수의 인원이 나가는 것보다는 다수의 인원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말 대회에서 수상하고 홍콩 본선에서도 32강 이상으로 진출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대회는 시간 투자가 많은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많은 대회입니다. 마음 맞는 학우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단순히 대회 성적 뿐 아니라 넓은 시야 및 네트워크 등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우의 리듬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하지만, 김현우는 누구보다 자신의 리듬을 지키며 사는 법을 안다. 지난 7월 종영된 <신입사원 탄생기-굿피플>에서 보여준 진중하고 차분한 모습이 그러했고, 갑작스럽게 화제의 중심에 섰음에도 하루의 대부분을 열람실에서 보내고 있는 요즘의 일상 또한 그의 리듬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연한 꿈, 단단한 확신

“어렸을 때 배우 송승헌이 변호사로 나온 드라마를 봤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멋있고 근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연하게 법조인을 꿈꿨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법대에 진학할 무렵이었는데, 당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가 마지막 법학과인거예요. ‘마지막 법대생’이라고 하니깐 뭔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웃음).”

살다 보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우연히 시작되는 것들이 있다. 축구선수를 꿈꾸던 김현우 학생이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본 후 법조인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처럼 말이다. 운명처럼 갖게 된 꿈이 정말 자신의 길인지 자문할 겨를도 없이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이십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의 꿈은 더욱 짙고 선명해졌다.

“국회의사당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을 때 한창 탄핵 정국이었던거예요. 탄핵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국회 앞에 모여 시위하는 모습을 비롯해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는데, 헌법 책에서만 보던 내용이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또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복무를 하다 보니 의경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불합리한 처우가 더욱 눈에 들어왔죠. 그때 비로소 법이 살아있고 입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조인으로서 살고자 결정한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김현우의 오늘

로스쿨에 입학한 순간부터 그는 매일 매일 지루하리만큼 단순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스트레칭과 간단한 아침식사

를 한 후에는 수업을 듣거나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 그러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열람실로 직행하는 이 루틴은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보여준다.

“로스쿨에서의 생활이 생각만큼 재미있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김없이 학점이 뒤집히거든요(웃음). 다행히 금방 싫증을 내는 성향이 아니라 공부가 직접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서강대학교 로스쿨은 정원이 많지 않아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유대감이 깊고, 여기에서 큰 위안을 얻고 있어요(웃음). 특히 친한 학우들과는 공부하는 사이클이라든가, 힘들어하는 시기가 비슷해서 그때마다 같이 산책을 하거나, 술 한잔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김현우 학생은 늘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겸손한 사람이다. 로스쿨 학생에게 주어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만큼은 더 없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다. 시간을 누구보다 촘촘하게 사용하는 그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학생회 부회장을 맡거나, 교지 편집부(서강로리뷰)에서 활동한 것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그에게 ‘왕자님’, ‘서강대 박보검’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신입사원 탄생기-굿피플>에 참여한 것 또한 궤를 같이 한다.

다시, 굿피플

최근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신입사원 탄생기-굿피플>은 로스쿨 학생들의 로펌 고군분투기를 그려 큰 인기를 얻었

다. 김현우 학생 또한 로펌에서 인턴을 했던 시간이 그의 삶에서 가장 농도가 짙은, 특별한 한 달이었다고 회고했다.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변호사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인턴을 하면서 변호사님들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 기록을 보고, 과제도 수행하면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어요. 또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실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인간적인 결합까지 더해지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운 거죠(웃음).”

김현우 학생에게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묻자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의 삶을 대신해서 치열하게 살아주는 ‘좋은’ 법조인이라는 명징한 답이 돌아왔다. 그는 날마다 좋은 법조인이 되고자 다짐하고, 그 다짐의 무게만큼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

“의뢰인은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 저를 선택하고 믿어준 사람이잖아요. 믿음에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 순간만큼은 의뢰인의 삶을 대신해서 치열하게 살아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만약 기회가 닿아 검찰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의에 부합하는 처우를 이끌어내고 싶고요.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겠죠?(웃음)”

김현우가 알려주는 로스쿨 입학 꿀팁!

▲ 공들인 자소서만 있으면, 리트 표준점수 150 부럽지 않다!

아직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 어떤 법조인이 되겠다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게 추상적이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살아온 삶에 비춰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을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번의 수정을 거듭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근사한 자기소개서가 완성된다.

▲ 스터디는 역시 ‘교차 스터디’

면접은 스터디에 가입하여 준비하면 좋은데, 스터디도 계속 하다보면 팀원들끼리 익숙해지기 때문에 교차 스터디를 권하고 싶다. 모르는 스터디원끼리 문제를 교환해서 꾸준히 연습하면,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현
우

학
생



법학적성시험의 의미



2018~2020 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위원장

오수근 교수

지난 7월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10,291명이 응시하였다.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총 12회의 법학적성시험이 치러졌는데 출제의 전문성과 시행의 안정성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 시험 성적은 법전원 입학 전형의 필수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전원수학능력시험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전원에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진학적성검사로 '법전원수학능력시험'이라 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에서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세 영역을 통해 법전원수학능력을 측정한다.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추론하는 능력과 논리적으로 사고를 전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법전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고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임이 분명하다.

미국 로스쿨입시위원회(LSAC)는 로스쿨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능력, 즉 '법학적성'으로 14가지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읽기, 추론, 논증 구축, 문제해결 능력이 포함된다. 이들 능력을 미국 법학적성시험(LSAT)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능력이 법전원수학능력의 기초인 것이다. 장래 테니스 선수를 선발하는데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적성 중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기대가 커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법학적성시험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그 성적 순으로 법전원 성적도 나오고 변호사시험 당락도 예측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실재는 차이가 있기도 하다.

법전원 성적에는 독해, 추론, 논증 능력 외에 여러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법전원 공부에 쏟은 노력, 체력, 암기력 등에 따라 법전원 성적은 달라진다.

한 가지 기준으로 법학적성의 모든 측면을 평가할 수는 없다. LSAC에서 규정한 법학적성 14가지 중 협동심, 연구 수행 능력, 구어 의사소통 능력 등은 필기시험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시간 관리 능력은 간접적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기초체력만으로 장래 테니스대회의 성적을 예측할 수는 없다.

모든 시험에는 측정오차가 있다

더욱이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유사한 학

생들로 구성된 한 법전원에서 법학적성시험 성적 순으로 학업성적이 평가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에는 측정오차가 있기 때문이다. 100점 만점인 어떤 시험에서 '측정의 표준오차'가 5점이라면, 80점 받은 사람의 능력이 69점을 받은 사람보다는 낮다고 할 수 있지만, 76점 받은 학생보다 낮다고 할 수는 없다. 68% 신뢰수준에서 진점수 범위는 각각 80±5점, 69±5점, 76±5점이 되기 때문이다. 측정오차 문제를 고려할 때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까닭에 법전원 입학 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 성적 외에 다른 전형 요소, 예를 들면 학부 성적, 공인 영어 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를 통해 법학적성시험이 측정하지 못하는, 학부에서 취득한 전공지식, 성실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다

간혹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지식을 측정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법전원 체계는 학부에서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연마한 후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을 배우는 구조이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도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지식을 묻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법학지식은 입학 이후에 법전원에서 배우고 익힐 대상이지 법학적성시험에서 물어야 할 것이 아니다. 서비스와 스트로크는 테니스 선수로 선발된 후에 배우는 것이다.

법학적성시험과 변호사시험 당락과의 관련성이 높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한 법전원에서의 학업성과 상관성이 높기는 어렵다. 입학생들 사이의 법학적성시험 성적의 차이가 크

지 않고 측정오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법전원생을 대상으로 하면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변호사시험 당락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 변호사시험 당락은 대규모 인원에게 단일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므로 이와 관련성은 법전원 학업성과의 관련성에 비해 훨씬 신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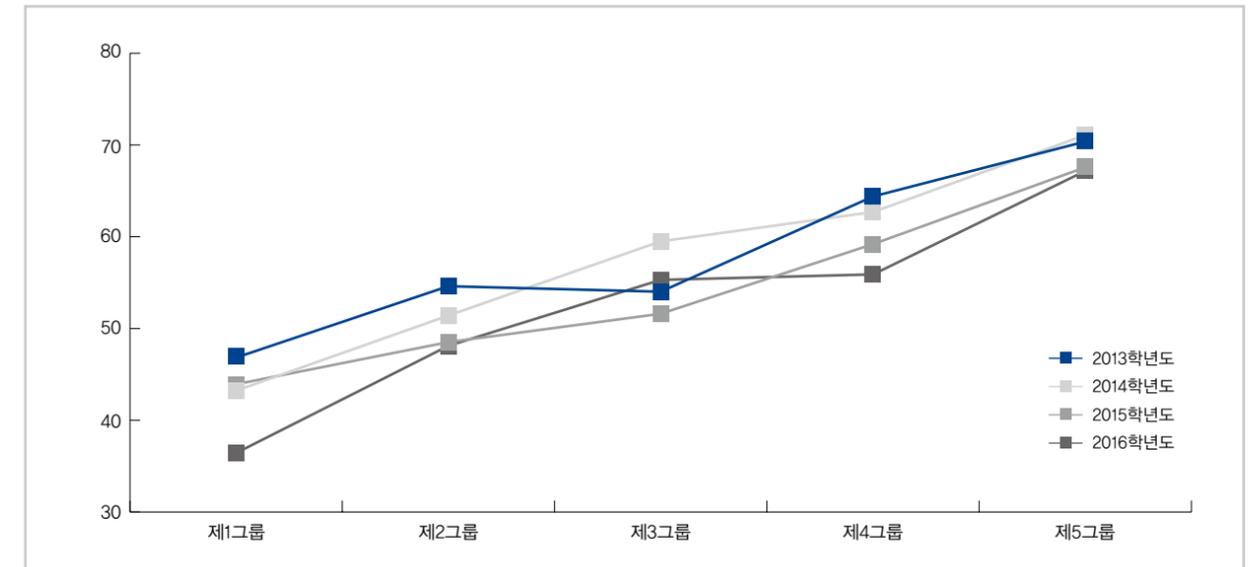
법전원협의회에서는 2013~2016학년도 법전원 전체 입학생의 법학적성시험 성적 구간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률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각 학년도 입학생 전체를 법학적성시험(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 성적에 따라 5개 그룹(그룹별 약 400명)으로 분류하면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높은 그룹일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변호사시험 당락 간에는 분명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적성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법학적성시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훌륭한 법률가가 될 능력과 자질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 구간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률(%)



성적 구간 \ 입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제1그룹	46.8	43.2	43.9	36.4
제2그룹	54.6	51.4	48.5	48.1
제3그룹	54.0	59.5	51.6	55.3
제4그룹	64.4	62.7	59.2	55.9
제5그룹	70.4	71.1	67.6	67.2

법학적성시험은 그 중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독해와 추론이 필수적인 요소이나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법학적성시험이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요소, 예를 들면 학부전공의 심화수준 평가 방법이나 구조화된 면접 방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법학적성시험이 갖는 내재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전원 전형에서 큰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점이다. 법전원 전체 응시자 중에서 각 응시자의 독해 및 추론 능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응시자 자신이 법전원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이지를 알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로 법학적성시험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조인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단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혜진 교수

누구나 성년이 되기 전에는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도래하였을 때 자신의 선택권이 거의 없거나 점점 성장해 가면서 자신을 자신만큼 아끼는 주변의 선택권이 혼동되어 가며 최종 결정이 도출되었을 것이다. 아마 아주 어렸을 적에는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좋고 싫음 등의 선택권의 표출을 울음이나 거부 등으로 표현하였겠지만 조금 더 자라서는 언어로, 조금 더 성장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거나, 주변인들과의 의견 조율 등등 변화되는 시기를 거쳐 선택의 순간에 그 순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하여 왔을 것이다. 그러한 선택의 대상이 아주 경미한 것에서부터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러한 결정의 순간을 거쳐 중대한 고민 끝에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일 것이다.

나도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 법조인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고, 만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하다 학교로 옮긴지도 벌써 6년이 다 되어간다.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만 9년 가까운 시간은 좋은 분들로부터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따뜻하게 떠올릴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시기의 경험과 기억을 언젠가는 공유하고 싶었던 내게 또 다른 방향의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 왔고, 그리고 그 순간의 끝이 지나 나는 지금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얼마 전 나는 학생부원장으로 있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조금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의 선택과 학생들의 선택의 대상이 된 '법조인'이라는 삶에 대하여 조금은 돌아보게 되는 시기가 있었다.

나는 그리고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왜 법조인의 삶을 꿈꾸었나? 그리고 왜 법조인이 되기 위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가고 있는가? 법조윤리 시간에 적당할 것 같은 이 질문을 나도, 우리 학생들도 많이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늘 잊지 말고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던져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한 이 질문과 그 당시 떠올린 자신의 답을 자신이 공부하는 책의 첫 장에 그 책을 한 번씩 볼 때마다 기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연구실에 내가 공부하던 시절 보았던 교과서 등의 교재를 여전히 갖고 있고, 내가 공부하던 책들의 첫 장에 그 책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날짜와 그 순간의 나의 마음을 간단히 적어 놓았다. 두려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시기에 법조인을 꿈꾸고 있었던 당시의 나 자신에게 짧게나마 적은 글들을 볼 때면 나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아주 결연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인지 나는, 나에게서는 이미 지난 시간 시기를 비슷한 경험을 하며 고생하고 있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볼 때면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학생이라는 관계를 떠나 그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알기에,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힘들어 어떠한 정도인지를 알기에 마구 응원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사실 3년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기간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법학을 접해본 적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법학의 기초를 다



지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이 혼재된 변호사시험의 모든 경향에 맞춘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기본서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어서, 특정 과목을 공부할 짬이 나질 않아서, 기출문제 이외에는 풀어볼 시간이 없어서 일종의 속성화 된 방식으로 수험생활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 맞춤형 속성 공부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시험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에게 그 누구도 뭐라고 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시험 맞춤형 속성화된 공부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 암기와 지문 변별, 판례 공부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만 법학을 공부한다면 법학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떠한 중요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아직 판례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판례가 있어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면 시험 맞춤형 속성화된 공부만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법조인'의 시각으로 제대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러한 과정을 생활해 나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가?

이것은 결국 제도의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개정방향이 수없이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어떤 방향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법조인의 삶을 기대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밤잠을 아껴가며 법학 공부에 투입하고 있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결론이 되어야 마땅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책에 녹여가며 불안할 때마다 다시 책을 펴 보고 마음을 다 잡았던 과거의 나와 같은 현재의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조인의 삶을 선택한 당시의 마음을, 공부하던 그 힘든 시기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결론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2019.
jul + aug

07+08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법전문 교수 위원 간담회 진행

6월 14일(금)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 법전문 교수 위원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순석 법전문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건국대 이승호 원장, 연세대 전광석 교수,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 중앙대 심인숙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평가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사항이 논의되었다.



2019년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영역회의 및 검토회의 개최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법전문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영역회의 및 검토회의가 열렸다. 영역별(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 위원장과 출제위원,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영역회의에서는 시험의 출제 방향 및 출제위원별 출제범위 논의, 업무분담 등이 이루어졌다. 개별 출제위원들은 영역회의 이후 분담된 문항을 제작하는 '사전 출제' 과정을 거쳤으며, 검토회의에서는 사전 출제 문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취임



김병기 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행정법
kimbk@cau.ac.kr



최우용 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행정법
wychoi@dau.ac.kr



안효질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공: 지적재산권법
iplaw@korea.ac.kr

2020

학년도 입학가이드



이사장 인사말



친애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되는 큰 변화가 있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우리나라 법조인의 역량을 결정한다는 시대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원 도입 이래 전문 교육을 받은 12,575명의 변호사가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법원, 검찰, 법무법인, 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수험생 여러분!

법학전문대학원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6,000명의 재학생 중 1,04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대부분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2020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들을 비롯한 교수님들, 교직원 선생님들께서 수험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므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1대 1 상담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이제 막 첫 걸음을 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순석

로스쿨 개요

▶ 입학정원

정부의 엄격한 설치인가 심사를 거쳐 전국의 총 25개 대학(정원 2,000명)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됐다.

구분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국·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사립대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입학정원 : 명

▶ 교원

- 전임교원 수 20인 이상 확보
- 교원 1인당 학생 수 12명 이하
- 실무경력교원(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실무경력 5년 이상) 20% 이상 확보

▶ 교육 시설

- 단독 건물, 강의실(대형 강의실 1개 이상 포함),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교원연구실, 세미나실, 연구소, 휴식공간 등
- 법학전문대학원 전용도서관: 전자저널을 포함한 학습저널 3개국 30종 이상 확보
-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 확보
- 열람실 보유: 편제정원의 70% 이상을 한 번에 수용(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1인 1석 제공, 사물함 배치)

▶ 전용 기숙사 시설

- 전체 학생 중 54.8% 기숙사 시설 사용(현재 학교별로 최소 19.4% ~ 최대 166% 확보)

▶ 학생 지원

-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55% 미만으로 유지
-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투자
-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30% 이상
- 리걸클리닉(학생들이 실제사건 법률상담 진행) 및 연구소 운영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의 특징

이론과 실무의 융합

-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되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 등 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선택과목을 통하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배양
- 배양된 법률지식과 소양이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충실한 실무교육을 제공

학제적·종합적 교육

-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으로 기존의 강의 방식과 차별화
-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추구함

공익과 직업윤리 강조

- 법률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함
-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함

» 교육과정개요

이론 교육

- 기본법학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

과 목	내 용
공 법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항목

-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 역사, 사회와 연관된 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과제에 대한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목

과 목	내 용
기초법학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
인접과목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

- 전문법학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법무,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존 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실무 교육

- 필수실무(5개)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 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

과 목	내 용
법조윤리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위준칙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설된 과목
법률정보의 조사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방법, 외국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과목
법문서의 작성	법률전문가의 필수적 자질인 법률문장 작성방법을 익히게 하고, 소장, 준비서면, 법률의견서, 신청서 등 다양한 형태의 법 문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과목
모의재판	헌법, 민사, 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실습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자를 면접, 상담, 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방법론(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어링(Lawyring) • 변호사 교원의 감독, 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을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 내용의 예비적 청취,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 해결안의 검토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 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 관련 부서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인턴십(Internship)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에 규정됨.

» 특성화 프로그램

- 인적·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별 다양한 특성화 분야가 교육과정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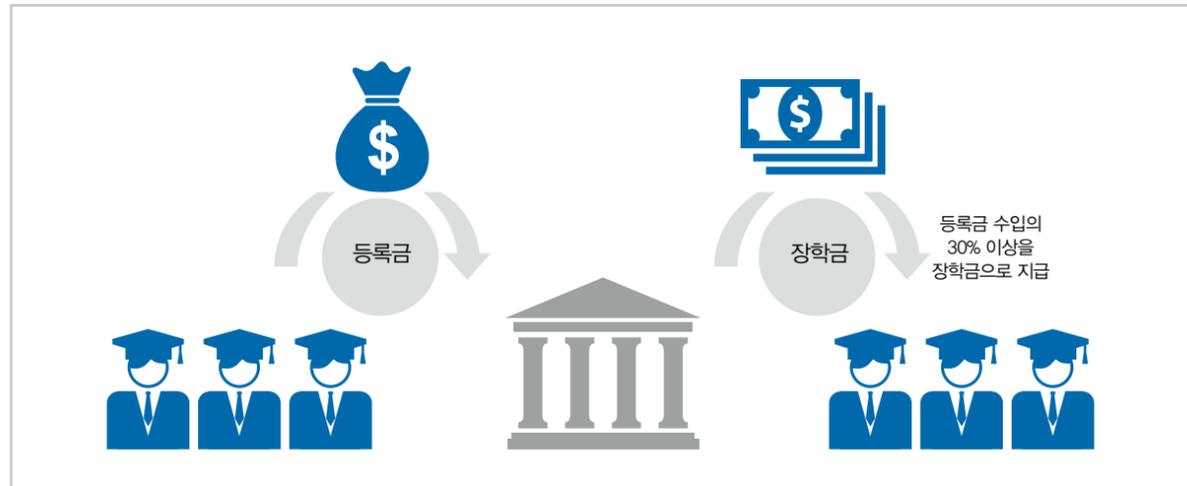
학교명	분 야	학교명	분 야	학교명	분 야
강원대	환경법	서울시립대	조세법	전북대	동북아법
건국대	부동산 관련 법	성균관대	기업법무	제주대	국제법무
경북대	IT법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중앙대	문화법
경희대	글로벌기업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충남대	지적재산권
고려대	GLP(국제법무)	영남대	공익·인권법	충북대	과학기술법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부산대	금융·해운통상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서강대	기업법(금융법)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전남대	공익인권법		

»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 국제화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 3년의 교육과정 중 6개(각기 다른 과목) 이상의 외국어 강의 개설
- 풍부한 국제 강의 경력과 실무 경력을 갖춘 교원 확보
-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공동학위, 학술대회 및 연구 등)

장학금 제도

» 법전원의 장학 제도



- 각 법전원은 의무적으로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2018학년도 법전원 장학금 지원 현황

재학생 수 (명)	총 등록금 (백만 원)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지원 현황	
		수혜 인원(명)	비율(%)	금액 (백만 원)	지급 비율(%)
12,117	85,197	6,975	57.6	29,523	34.7

*18학년도 재학생 12,117명 가운데 6,975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율은 57.6%로 나타났다.

* 총 등록금액 852억 원 중 장학금 지급액은 295억 원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율은 34.7%이다.

» 2018학년도 법전원 장학금 세부 현황

수혜 인원 (명)	총 지원액 (백만 원)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기타 자체 장학금		
		인원(명)	금액 (백만 원)	비율(%)	인원(명)	금액 (백만 원)	비율(%)
6,975	29,523	3,687	22,520	76.3	3,288	7,003	23.7

(참고) 2019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초~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총 정원의 약 17%)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44.5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의 학생 1,04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 밖의 소득 구간의 학생 또한 학교별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교육부, '19.2.28)

» 장학금 지원 순위

순 위	지 원 내 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전액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 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 구간을 산출하여,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 올해부터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범위가 작년 대비 확대되었다.

(참고) 전문대학원별 연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17년도)

(단위: 천 원, %)

구분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14,238	5,177	36.9	9,061
의학전문대학원	15,517	2,865	17.7	15,517
경영전문대학원	24,940	4,430	18.2	20,511

* 법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보다 등록금액이 적으나 장학금 비율은 월등하게 높아 실질등록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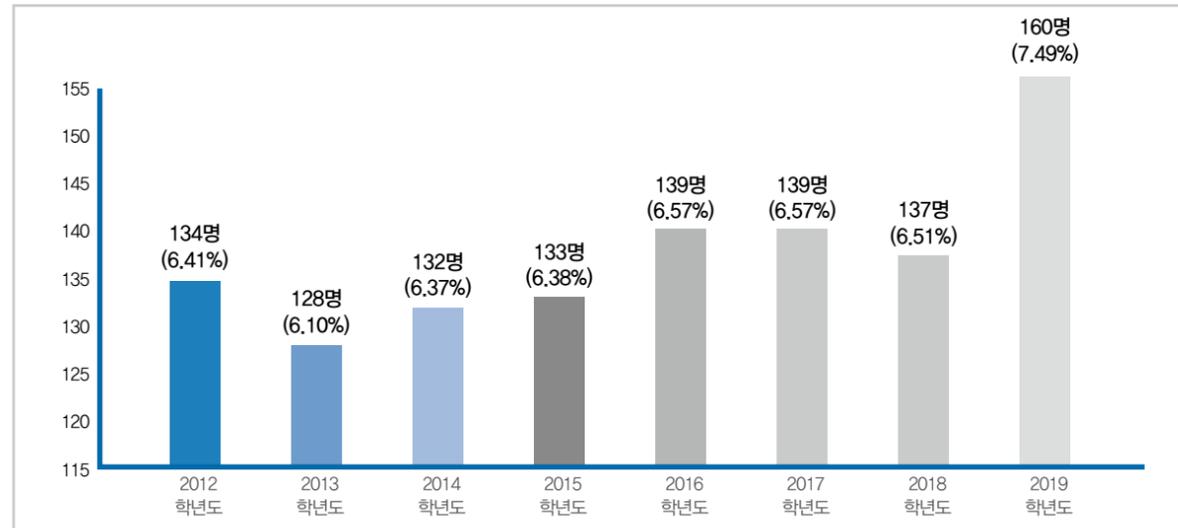
* 데이터 출처: 대학 알리미

특별전형 /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 특별전형 제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을 각 교 입학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하였다.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인원: 1,467명(2009년~2019년)
- 선발현황



※ 2018학년도까지는 매년 5% 이상을 선발했으나, 2019학년도부터 입학자의 7% 이상 선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 지급(학교별 상이)

• 선발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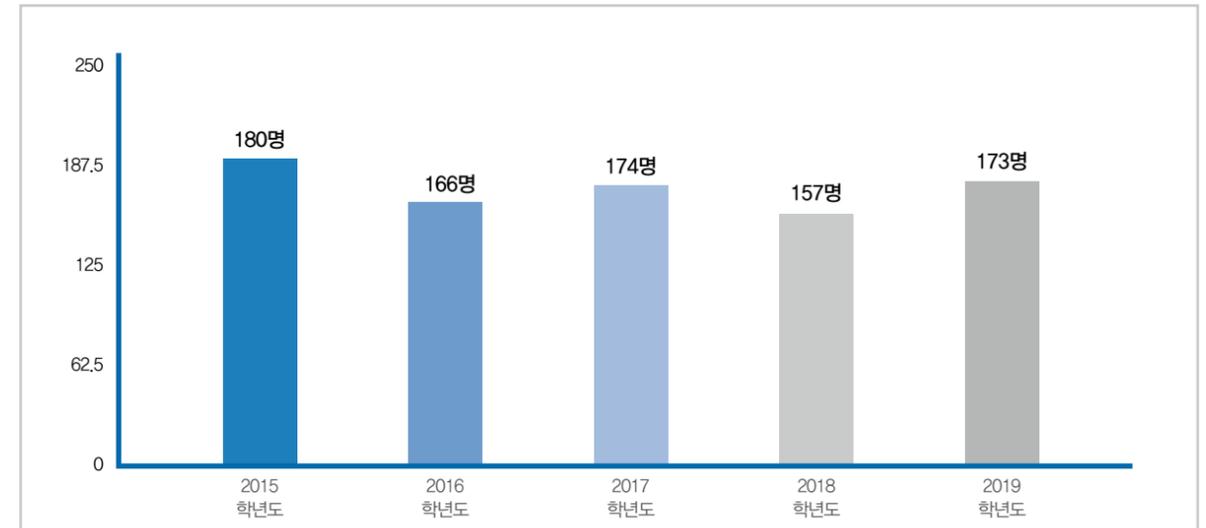
선발유형	공통기준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 6등급 이상(본인에 한함)
경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 자녀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자세한 사항은 각 교 모집요강 참고

»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 강원, 제주(2개교) : 입학정원의 10% 이상 선발
- 경북, 동아, 부산, 영남, 원광, 전남, 전북, 충남, 충북(9개교) :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



특별전형 사례 소개

김동현 변호사

카이스트를 졸업한 뒤 정보기술(IT) 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김동현 변호사는 2012년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좌절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해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시각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에 임용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출처: 법률신문)

김원영 변호사

김원영 변호사는 어린시절 골형성부전증이라는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열다섯 살 때까지 병원과 집에서만 생활했다.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중학부와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일했으며,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실무교육

» 기관별 실무수습 기회 제공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에게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로펌, 법률사무소,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실시되는데 일부 학생은 실무수습을 통해 연수기관에서의 채용이 확정되기도 한다.

구분	내용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1, 2, 3학년생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기관(법원, 국회, 국세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방부 등) 로펌(김앤장, 세종, 광장 등), 법률사무소 등 기업(삼성, LG, KT 등),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실습기간	동계/하계 방학 중 1주~4주
학점인정	학교별 1학점~2학점 인정

» 유관기관의 실무강의 지원

법학전문대학원은 판사, 검사 등 현직법조인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바탕으로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기관	과목명	파견인원(2018년도)	비고
법원행정처	민사재판실무(1학기) 형사재판실무(2학기)	24명	강의지원은 부장판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울권역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이외 권역은 법전원 소속지역 법원 지법부장을 파견
법무부	검찰실무	6명	파견기간은 1년간으로 당해연도 2학기에서 차년도 1학기 또는 당해연도 1~2학기를 원칙으로 함
경찰청	경찰실무	8명	1학기 또는 2학기에 출강을 희망하는 법전원에 파견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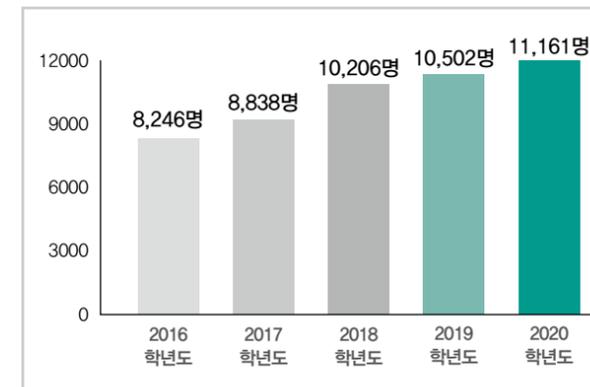
» 리걸클리닉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는 제도다. 리걸클리닉 소송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비 없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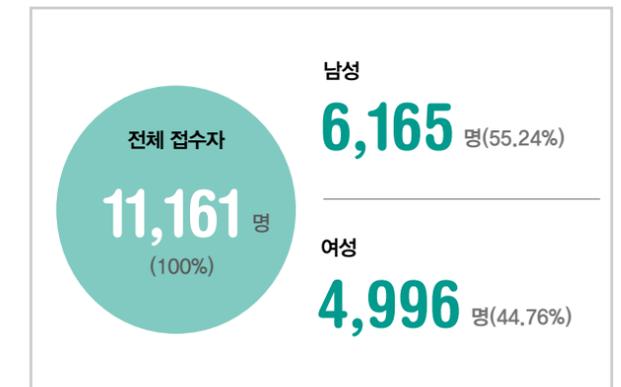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법률상담(건)	1,284	2,147	2,204	2,080
소송참여(건)	235	240	424	334

2020학년도 LEET 원서접수 결과

» 연도별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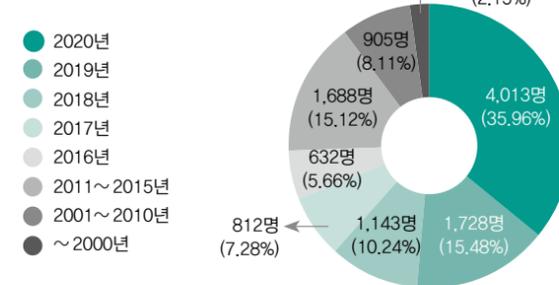


» 계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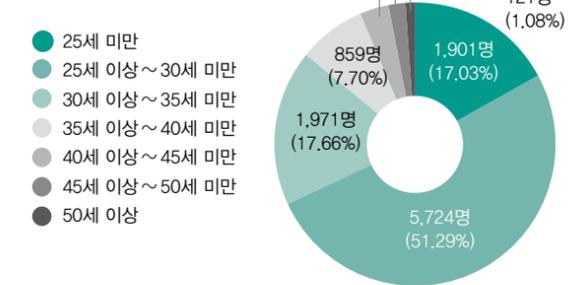
단위: 명 / %

공학	농학	법학	사범	사회	상경	신학	약학	예체능	의학	인문	자연	기타	총계
744	47	2,368	447	2,166	2,415	37	53	137	81	1,957	347	362	11,161
6.67	0.42	21.22	4.01	19.41	21.64	0.33	0.47	1.23	0.73	17.53	3.11	3.24	100

» 졸업연도별



» 연령별



» 시험지구별

단위: 명 / %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8,401	683	605	425	291	179	422	105	50
75.27	6.12	5.42	3.81	2.61	1.60	3.78	0.94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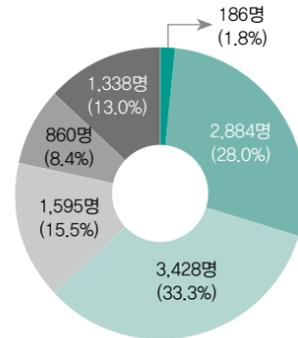
2020학년도 LEET 채점 결과

영역별 응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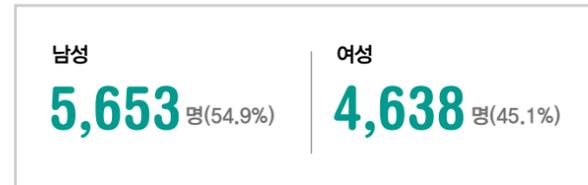


연령별 응시자 현황

- 22세 이하
- 23세~25세
- 26세~28세
- 29세~31세
- 32세~34세
- 35세 이상



성별 응시자 현황



계열별 응시자 현황

계열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10,291명 중에서 상경계열이 2,239명(21.8%)으로 가장 많았고, 법학계열 2,169명(21.1%), 사회계열 2,037명(19.8%), 인문계열 1,807명(17.6%), 공학계열 668명(6.5%), 사범계열 417명(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표준점수 분포도

표준점수	언어이해			추리논증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90.0 이상 ~ 95.0 미만	-	-	-	8	0.1	0.1
85.0 이상 ~ 90.0 미만	-	-	-	55	0.5	0.6
80.0 이상 ~ 85.0 미만	-	-	-	193	1.9	2.5
75.0 이상 ~ 80.0 미만	-	-	-	834	8.1	10.6
70.0 이상 ~ 75.0 미만	1	0.0	0.0	890	8.7	19.3
65.0 이상 ~ 70.0 미만	65	0.6	0.6	1,832	17.9	37.2
60.0 이상 ~ 65.0 미만	245	2.4	3.0	1,317	12.8	50.0
55.0 이상 ~ 60.0 미만	1,283	12.5	15.5	1,889	18.4	68.4
50.0 이상 ~ 55.0 미만	1,462	14.2	29.7	963	9.4	77.8
45.0 이상 ~ 50.0 미만	2,679	26.0	55.7	1,147	11.2	89.0
40.0 이상 ~ 45.0 미만	1,641	15.9	71.7	480	4.7	93.7
35.0 이상 ~ 40.0 미만	1,285	12.5	84.2	419	4.1	97.8
30.0 이상 ~ 35.0 미만	1,136	11.0	95.2	135	1.3	99.1
25.0 이상 ~ 30.0 미만	345	3.4	98.6	80	0.8	99.9
20.0 이상 ~ 25.0 미만	124	1.2	99.8	11	0.1	100.0
15.0 이상 ~ 20.0 미만	15	0.1	99.9	2	0.0	100.0
10.0 이상 ~ 15.0 미만	3	0.0	99.9	1	0.0	100.0
5.0 이상 ~ 10.0 미만	7	0.1	100.0	-	-	-
계	10,291	100.0	-	10,256	100.0	-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사항

입학자격

- 다양한 전공을 가진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2020년도 2월 졸업 예정자

입학전형자료

- 학사학위(GPA)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공인 어학성적,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활용

선발방법

- 일반전형: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
- 특별전형: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입학자의 7% 이상)

학생 구성의 다양성

- 비법학사: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3 이상 선발
- 타교출신: 법전문 대학원 설치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1/3 이상 선발
- 지역균형인재: 지방소재 법전문원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강원·제주 10%, 그 외 20%)

입학 정원

- 총 2,000명 (*학교별 입학정원은 37P 참고)
- 결원보충: 2019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단, 선발인원은 각 학교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음

주요내용		일정	비고	
2020학년도 LEET 시행		2019. 7. 14(일)		
LEET 성적 발표		8. 14(수)		
공동입학설명회		8. 30(금) ~ 8. 31(토)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정시 모집	원서접수		9. 30(월) ~ 10. 4(금) 18시	
	면접일자	가군	10. 28(월) ~ 11. 10(일)	
		나군	11. 11(월) ~ 11. 24(일)	
	(최초) 합격자	발표	11. 25(월) ~ 12. 6(금)	학교가 일정을 정하여 시행
		등록	2020. 1. 2(목) ~ 1. 3(금)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1. 6(월) ~ 1. 8(수)	
등록		1. 9(목) ~ 1. 10(금)		
1차 추가합격자 등록 이후 결원 발생 시 학교별 일정에 따라 총원 진행				
결원 인원 확정		2. 28(금)		
추가모집		해당 학교에서 일정을 정하여 실시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 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강원대 [환경법]	40 (0/4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70점 [합계 : 320점]	○ 1단계 성적 : 32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42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나’군)	○ 비법학사 : 20명 이상 ○ 타 대학 : 24명 이상 ○ 지역인재 : 4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33)250- 6503
건국대 [부동산]	40 (40/0)	○ LEET성적 : 200점 ○ 대학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00점]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800점]	정원의 300% 이상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 비법학사 : 1/3명 이상 ○ 타 대학 : 1/3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450-3620
경북대 [IT]	120 (60/6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면접 : 5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30점 ○ 면접성적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가’군: 5명 ‘나’군: 4명)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53)950- 5452 입학관리처 : 053)950- 2763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60 (60/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300점]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4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21명 이상 ○ 타 대학 : 21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961-9218
고려대 [국제법무 (Global Legal Practice)]	120 (0/120)	○ LEET성적 : 200점 ○ 학부성적 : 200점 ○ 자기소개서 : 100점 ○ 어학성적 : P/F [합계 : 500점]	○ 1단계 성적 : 500점 ○ 면접성적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6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3290- 1428 http:// kulawschool. korea.ac.kr
동아대 [국제 상거래]	80 (40/40)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2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800점]	○ 1단계 성적 : 8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군별 3명씩)	○ 비법학사 : 27명 이상 ○ 타 대학 : 27명 이상 ○ 지역인재 : 20%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51)200- 8581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 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부산대 [금융· 해운 통상법]	120 (70/50)	○ LEET성적 : 35점 ○ 학부성적 : 25점 ○ 어학성적 : P/F ○ 자기소개서 : 20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논술성적 : 10점 (‘가’군만) ○ 면접성적 : (‘가’군 : 10점, ‘나’군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 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가’군: 5명 ‘나’군: 4명)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51)510- 1727 입학관리과 : 051)510- 1215
서강대 [기업법 (금융법)]	40 (20/2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8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2명 ‘나’군: 1명)	○ 비법학사 : 14명 이상 ○ 타 대학 : 20명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705-7833, 8790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150 (150/0)	『일반전형』 ○ 어학성적 : P/F ○ LEET성적 : 60점 ○ 대학성적 : 60점 ○ 정성평가 : 80점 [합계 : 200점]	『일반전형』 ○ 1단계 성적 : 2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50점 [합계 : 250점]	정원의 150% 선발 (특별 전형 3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11명 이상 (‘가’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880-7539
		〈특별전형〉 특별전형 선발 대상 및 기준 등은 전년도 모집 안내를 참고하되 추후 공지되는 2020학년도 모집 안내를 반드시 확인바람						
서울 시립대 [조세법]	50 (50/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5점 ○ 서류심사 : 15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논술성적 : 5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 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법전문 행정실 : 02)6490- 5070
성균관대 [기업법무]	120 (0/12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30점 ○ 어학성적 : 5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85점]	○ 1단계 성적 : 85점 ○ 면접성적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25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나’군)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LEET논술은 서류심사에 반영	법전문 행정실 : 02)760-0922
아주대 [중소기업 법무]	50 (25/25)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서면평가 : 15점 (서류10점/논술5점) ○ 대면평가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군별 2명씩)	○ 비법학사 : 17명 이상 ○ 타 대학 : 17명 이상	법전문 교학팀 : 031)219- 1667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 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연세대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과학 기술]	120 (0/12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5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합계점수 : 40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450점]	정원의 250% 내외 선발 (특별 전형 3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LEET 논술은 서류평가에서 검토함. ○ 일반전형은 영어성적 최저기준 적용	법전원 행정실 : 02)2123-3801
영남대 [공익 인권법]	70 (35/35) *결원 보충 1명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00점]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3명 ‘나’군 : 2명)	○ 비법학사 : 24명 이상 ○ 타 대학 : 50명 이상 ○ 지역인재 : 15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3)810-2693
원광대 [의생명 분야]	60 (30/30)	○ LEET성적 : 4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 서류평가 : 20점 [합계 : 100점]	○ 1단계 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2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 비법학사 : 22명 이상 ○ 타 대학 : 29명 이상 ○ 지역인재 : 12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3)850-5083 입학관리처 : 063)850-5264
이화여대 [생명 의료법, Gender 법]	100 (0/100)	○ LEET성적 : 60점 ○ 대학성적 : 40점 ○ 어학성적 : 30점 ○ 서류심사 : 50점 [합계 : 180점]	○ 1단계 성적 : 180점 ○ 논술성적 : 10점 ○ 심층면접 : 10점 [합계 : 2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8명 (‘나’군)	○ 비법학사 : 34명 이상 ○ 타 대학 : 3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3277-2732
인하대 [지적 재산권, 물류법]	50 (25/25)	○ LEET성적 : 250점 ○ 대학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50점]	○ 1단계 성적 : 75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5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4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각 군별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32)860-7913,7920
전남대 [공익 인권법]	120 (60/6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가’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1/5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2)530-2208 입학과 : 062)530-4738
전북대 [동북아법]	80 (37/43)	○ LEET성적 : 30점 ○ 학부성적 : 15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10점 [합계 : 65점]	○ 1단계 성적 : 65점 ○ 논술성적 : 15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28명 이상 ○ 타 대학 : 28명 이상 ○ 지역인재 : 17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3)270-2661 입학관리과 : 063)270-4744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 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제주대 [국제법무]	40 (20/20)	○ LEET성적 : 35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5점 [합계 : 60점]	○ 1단계 성적 : 60점 ○ 면접성적 : 40점 - 서류심사 : 60점 - LEET논술 : 10점 - 구술고사 : 3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 2명 ‘나’군 : 1명)	○ 비법학사 : 35% 이상 ○ 타 대학 : 35% 이상 ○ 지역인재 : 1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4)754-8373 입학관리과 : 064)754-3994
중앙대 [문화법]	50 (50/0)	○ LEET성적 : 10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4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820-5422~4
충남대 [지적 재산권]	100 (50/50)	○ LEET성적 : 12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30점 [합계 : 350점]	○ 1단계 성적 : 350점 ○ 논술성적 : 20점 ○ 면접성적 : 40점 [합계 : 410점]	정원의 25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7명 (‘나’군)	○ 비법학사 : 42명 이상 ○ 타 대학 : 60명 이상 ○ 지역인재 : 20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42)821-8507 입학과 : 1644-8433
충북대 [과학 기술법무]	70 (40/30)	○ LEET성적 : 15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60점 [합계 : 410점]	○ 1단계 성적 : 410점 ○ 면접성적 : 40점 [합계 : 45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 비법학사 : 25명 이상 ○ 타 대학 : 25명 이상 ○ 지역인재 : 1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43)261-2615 입학과 : 043)261-3303
한국외대 [국제지역]	50 (50/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학사지원팀 : 02)2173-2463 FAX : 02)2173-2966
한양대 [국제소송, 지적재산· 정보, 공익·소수 자인권]	100 (0/10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논술성적 : 10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8명 (‘나’군)	○ 비법학사 : 40% 이상 ○ 타 대학 : 4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2220-2770 입학처 : 02)2220-0078

* 상기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_ 1단계 전형의 'LEET 성적'은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을 말하는 것이며, '논술'은 법학적성시험의 논술 영역을 의미하는 것임. (논술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및 활용여부 결정함)

* 개별 법전원은 '2020학년도 결원보충 인원'으로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2019학년도 재학생 중 발생한 결원 인원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kangwon.ac.kr/	
교육 목표	실사구시(實事求是)	
	5+1 Best	지 식 : 전문화된 법지식을 갖춘 법조인 윤 리 :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 사명감 : 국가·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명감을 갖춘 법조인 국제화 : 국제화된 법조인 기 술 : 실무적 기술을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조인 환경법특성화 : 환경의식을 갖춘 법조인
특성화 분야	환경법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장학지원 및 각종 교외 장학지원(지자체, 기업체, 장학재단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학 기금 장학금 지급률 : 2018학년도 40.27%, 2019학년도 1학기 43.24% ※ 장학금은 매학기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대상자,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 성적, 가계형편, 기타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등지급. 70% 이상을 가계형편을 고려하여 지급 ※ 지자체 장학금 등 장학재원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13개 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방학기간을 이용한 상호 교류 실시 국내외 40개 기관과 협약 체결 후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나' 군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09:00~10. 10.(목) 18:00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6.(수)
면접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2020년 2월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19년도에 실시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는 자
- 2017.10.20.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19.10.04.)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TOEFL(iBT)	TEPS	TOEIC
75점 이상	(개정전 990만점)570점 이상, (New TEPS 600만점)308점 이상	720점 이상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konkuk.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존중의 이념과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법률가 양성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창의적·미래지향적 법률전문가 양성 건전하고 올곧은 직업윤리관을 가지고 공동선과 공익을 추구하는 법률가 양성 	
	특성화 분야	부동산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전체 장학금의 70% 이상 지급 성적장학금, 공로장학금 등은 장학유형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 장학규정에 근거하여 매학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장학금액 등 결정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공동학위 프로그램 실시 다양한 국내 외부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따른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가' 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10. 4.(금) ~ 10. 8.(화)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우편: 2019. 10. 8.(화) 소인까지 인정 방문접수: 2019. 10. 5.(토) ~ 10. 6.(일) 제외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31.(목) 14:00 (예정)	본교 로스쿨 홈페이지 공지
면접	2019. 11. 9.(토) (예정)	세부일정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14:00 (예정)	본교 로스쿨 홈페이지 공지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0년 2월 학위취득 예정인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실시된 공인영어능력시험에서 지원자격 기준 점수를 취득한 자

TOEFL		TEPS		TOEIC
iBT	CBT	기존 TEPS	개정 TEPS	
71점 이상	197점 이상	625점 이상	340점 이상	700점 이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knu.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학이념인 진리·공지·봉사를 받들며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책임을 다하는 특화된 법조인' 양성 • 대구·경북지역의 특성과 경북대학교 및 기존의 법과대학을 토대로 IT법을 특성화 분야로 정하여 지역과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
특성화 분야	IT법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 장학금 지원 • 각종 교외 장학지원 (대구시 장학금, 구원장학재단 장학금, 대구은행 장학금, 효성장학회 장학금, 유남장학금, 취약계층 장학사업 등) ※ 장학금은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결과로 본교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대상자, 지급금액 등을 결정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모두 18곳의 외국 대학, 로펌, 기업들과 협약체결 • 국내·외 70여개 법조유관기관과 실무수습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09:00 ~ 10. 7.(월) 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1.(금) 11:00		
면접	2019. 11. 9.(토) 09:00	2019. 11. 16.(토) 09:00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 2. 28.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나 법령에 의해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19년도에 실시된 적성시험 (이하 '법학적성시험'이라함)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는 자
- 2017. 10. 20.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성적을 제출한 자

구분	TOEFL(iBT)	TEPS	TOEIC
일반전형	79점 이상	656점 이상(개정 전)/358점 이상(개정 후)	750점 이상
특별전형	65점 이상	559점 이상(개정 전)/302점 이상(개정 후)	655점 이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khls.ac.kr
교육 목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우수한 법률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적 가치관과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 • 법률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 • 글로벌 마인드와 개방적 자세를 갖춘 법조인의 양성 • 미래 사회지도자로서의 법조인의 양성
특성화 분야	글로벌 기업법무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수입의 30%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액의 70% 이상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고려하여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감면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장학금 지급 • 그 외 해외실습지원장학, 모범장학, 동문특별장학 등 다양한 장학제도 마련하여 시행 중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1개 대학과 교류협력체결 중 • KHLS Study Abroad Program을 통해 방학 중 해외대학 교육을 통해 학점 이수 기회 부여, 학기 중 미국 로스쿨과 화상강의를 통한 팀티칭 수업 진행 • 공동학위과정(Dual Degree Program)을 운영하여 미국 LL.M. 학위취득과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부여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 10. 4.(금) 18:00까지	www.uwayapply.com
서류접수	2019. 9. 30.(월) ~ 10. 10.(목) 18:00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4.(월) 16:00	http://www.khls.ac.kr
면접	2019. 11. 9.(토) 13:00~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2.(월) 16:00	http://www.khls.ac.kr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2월 취득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2018년 1월부터 서류제출 마감일(2019.10.10.)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이 아래 중 하나의 성적을 취득한 자

TOEFL(PBT/iBT)	TEPS	TOEIC
550점 이상 / 79점 이상	247회차 시험까지는 555점 이상, 248회차 이후 시험은 30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kulawschool.korea.ac.kr/
교육 목표	<p>홍익인간, 교육구국, 자유·정의·진리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지도자적 우수 전문법조인과 법학자를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품성의 교육 집단과 개인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의 교육 올바른 정책판단과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학문적 지식과 소양의 교육
특성화 분야	국제법무(Global Legal Practice)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금수입액의 33% 이상(2018년)을 장학금으로 확보하고 대부분 가사장학금으로 배정 장학금은 조건별, 금액별 세분하여 다양한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배정 가정환경이 특히 어려운 경우 학비 외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배정 로스쿨 교수장학회, 고려대 교우장학회 등 다양한 교내외 기금장학금 추천 입학성적 최우수자 특별장학금 배정 특별전형 중 경제적 약자인 경우 소정의 기준(소득분위)을 통과하면 졸업(6학기 기준)까지 등록금 전액 지급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현재 15개국 36개 해외교육기관과 자체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협력진행 해외 로펌, 국제기구 인턴십 연계 및 지원제도 실시(소정의 심사를 거쳐 항공료 지원, 2019년 기준 누적 100여 건 이상 지원시행) 81여개 국내외로펌, 기업, 공공기관과 법무실습 협약 체결



» 전형일정

구 분	'나' 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9시 ~ 10. 4.(금) 18시	
서류접수	등기우편/택배: 2019. 9. 30.(월) ~ 10. 8.(화) 17:00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직접 방문제출: 2019. 10. 1.(화), 2.(수), 4(금), 7(월), 8(화) 10:00~17:00 (토요일, 공휴일 휴무)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6.(수)	고려대 로스쿨 홈페이지
면접	2019. 11. 16.(토)	고려대 인문계 캠퍼스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고려대 로스쿨 홈페이지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구분	TOEFL(iBT)	TEPS	TOEIC	IELTS(Academic Module)
일반전형	94점	657점(개정 전) / 359점(개정 후)	815점	6등급
특별전형	지원최저기준 없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donga.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 전문성 있는 법조인 양성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
특성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상거래법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현장중심의 다양한 실무교과목 개설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성적우수자를 위한 장학지원 및 다양한 학업 보조 각종 교외 장학지원 ※ 장학금은 매 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성적, 가계형편, 기타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함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iversity of Wisconsin, 서남정법 대학, 국립중앙대학 등 해외 4개국 28개 대학과 학술 교류협정 체결 30개 기관과 협약 체결 후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가' 군	'나' 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10. 7.(월) 16:00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 2019년 10월 7일 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4.(월) 17:00		
면접	2019. 11. 9.(토)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17:00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다만 예정자는 2020년 2월 말까지 학위 취득자에 한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0학년도 법적성시시험(EET)에서 공식 점수를 취득하여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2017년 11월 1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19년 10월 4일)까지 국내에서 시행한 공인영어능력시험에서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한 아래 표 상의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지원서류 제출 마감일(2019년 10월 7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자

TOEFL(iBT)	TOEIC	TEPS	
		2018.4.7. 이전 시행	2018.5.12. 이후 시행
68점	600점	476점	255점

※ 상기 모든 공인영어능력시험은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 TOEIC의 경우 2019년 9월 8일(일) 시험까지만 인정함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pusan.ac.kr
교육 목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음과 같은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적 법조인 • 창조적·비판적 탐구심으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법조인 • 다양한 전문분야와 국제적 법무에서 활약하는 유능한 법조인 • 금융·해운통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적 법조인 • 지역사회의 법무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
특성화 분야	금융 및 해운통상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등록금재원장학금 지원(성적우수, 학업지원) • 법전원 취약계층장학금 지원(학업지원, (자녀)생활장학금) • 교외 장학지원(장학재단, 장학회, 총동문회, 협회 등) ※ 장학금은 매학기 성적, 가계형편(소득분위, 자녀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대상자 선발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법률상담실습, 변호사 실무수습, 특성화 제휴기관 실무수습, 기타기관 실무수습 운영 • 해외 37개 대학 및 로펌 등과 교류협약 체결, 학생교환, 법무실습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10. 1.(화) ~ 10. 7.(월) 18:00, 도착분에 한함 (※토, 일요일 제외)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5.(화)	
면접	2019. 11. 9.(토)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 2019년에 실시되는 법학교육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본인이 지원하는 입학학기 이전(2020년 2월까지, 단 일본 등 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에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가 인정되는 자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23개월 20일 이내에 응시하여 취득(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점수)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있는 자 단,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함

TOEFL(iBT)	TOEFL(iBT)	TEPS	NEW TEPS	TOEIC
94점 이상	240점 이상	689점 이상	379점 이상	800점 이상

※ 2020학년도부터 영어시험 성적은 Pass/Fail 제도로 변경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sogang.ac.kr
교육 목표	교육이념 : 예수회의 교육이념을 토대로 자유·민주·인권·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이웃과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교육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 • 분쟁해결능력을 갖춘 법조인 • 국제화 시대에 조응하는 법조인 • 기업법·금융법 전문 법조인
특성화 분야	기업법, 금융법
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공동체사랑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다수 ※ 수업료 중 총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환원함 ※ 특별전형 중 경제적 약자로 합격한 자는 6학기 전액 장학금(입학금 포함)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소득분위, 성적 평점평균, 이수학점 수, 지정 필수과목 이수 등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내부기준을 충족 하여야 함)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일, 중 등 해외 명문 8개 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공동학위 프로그램 실시 • 국내 다수 기관과 협약 체결 후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10: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 10. 8.(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 제출일 경우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1.(금)		
면접	2019. 11. 9.(토)	2019. 11. 23.(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5.(목) 15:00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년 2월 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일본 소재 대학은 2020년 3월 27일(금) 이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019년도에 시행하는 2020학년도 법학교육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2019년 7월 14일(일) 시행)
- 2018년 3월 1일 이후에 아래의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19년 10월 4일(금))까지 취득한(공인영어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아래의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자(2019년 10월 5일(토) 이후에 발표되는 공인영어성적표로 교체 불가함)

TOEFL(iBT)	TOEIC	TEPS	
		기존	개정
79점 이상	700점 이상	555점 이상	300점 이상

※ TEPS 개정 점수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TEPS 점수를 반영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를 선도하는 법학 교육 •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 • 전문화된 사회적 수요의 충족 • 창조적 학문후속세대 양성
특성화 분야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장학금	<p>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장학지원제도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곤란 학생에게는 등록금에 대하여 희망장학금(생활비) 지원 • 약속장학금 시행: 기부의 선순환을 통한 장기적인 장학금 자원 확보 • 다양한 외부 장학금: 서울대 발전기금, 서울법대 장학재단, 한화 김승연 장학금 등 • 장학금액: 전체 등록금 대비 35% 이상(2018학년도 기준) <p>※ 매학기 신청을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함. 이때 경제적 환경, 신체적 상황(장애)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하며, 전액/부분 장학금과 같이 차등 지급함</p>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개 해외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후 정규 및 계절학기 해외 수학 기회 제공 • 59개 기관과 협약 체결 후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10:00 ~ 10. 7.(월) 17:00 (방문접수는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한 평일만 가능)	우편송부 시 2019. 10. 4.자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6.(수) 18:00	일반전형
면접	2019. 11. 9.(토)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3.(화) 18:00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TOEFL(IBT/PBT)	TEPS (990점 만점 / 600점 만점)	비고
99점 / 597점 이상	701점 이상 / 387점 이상	일반전형 (특별전형: 성적제한은 없으나 성적제출은 필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uos.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가치관과 풍부한 교양 및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 • 법률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 조세법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
특성화 분야	조세법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학년도 기준 학기당 약 500만원의 합리적인 등록금 • 2018년도 장학금 지급률이 등록금 총액 기준 43.55% • 장학금지급 시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배려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학년도 기준 상해대학교(15명), 홍콩대학교(10명), 일본 수도대학동경(7명), 스페인 카를로스 3대학(6명)으로 총 35명의 학생들을 파견하며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 이 외에도 류큐대학교, 리츠메이칸대학교, 청화대학교,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몽골국립대학교,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외국의 유명대학 및 연구소와 협약 체결 • 법원,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서울시 등 공공기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국내의 대형 로펌 등 기타 다양한 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나'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방문접수】 2019. 10. 7.(월) ~ 10. 8.(화) 10:00 ~ 17:00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법학관 5층 533호
	【우편접수】 2019. 10. 1.(화) ~ 10. 8.(화) 18:00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5.(화) 15시 이후	http://lawschool.uos.ac.kr (개별통지 없음)
면접	2019. 11. 9.(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http://lawschool.uos.ac.kr (개별통지 없음)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0년 2월까지 취득예정인 자 또는 동일한 기간 내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가. 2019년에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
나. 입학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취득한 공인영어시험(TOEIC, TOEFL, TEPS에 한함)의 정규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sls.skku.edu
교육 목표	「플러스+형 법률전문가」 양성 • 전문법조인의 윤리규범을 갖춘 교양인 •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이론+실무) • 공동체 정신으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리더
특성화 분야	기업법무
장학금	다양한 장학지원제도 운영 • 전체 등록금 대비 35%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이중 72%를 경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2018년 기준) • 경제적 배려대상은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및 심사를 통해 추가장학금도 지원 • 한용교장학금, 형설장학금, 가갑손장학금, 이규용장학금 등 다양한 외부장학금 지급
교류협력	해외 31개 대학 및 국내 46개 기관과 학생교류 및 실무수습 진행 • Fordham, Emory, Indiana, Illinois 대학 등과 공동학위과정 운영(누적 공동학위 20명 및 미국변호사 10명 배출)하며, 공동학위과정 파견시 본교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및 파견대학 등록금 일부 면제 • 성균관대-포담대 하계법학과정 운영(매년 50여명 학생 교류 및 학점 취득) • 국내·외 로펌/대기업/공공기관 등 46개 기관과 협약체결 및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09:00 ~ 10. 7.(월) 18:00	방문접수는 평일만 가능. 우편접수는 10. 7.(월) 소인까지 유효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11.14.(목)	
면접	11. 23.(토) 07:30 ~ 18:00	
최종합격자 발표	12. 6.(금) 14:00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2019년에 시행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017.10. 5. 이후)에 아래 영어성적을 취득한 자

TOEFL(IBT)	TEPS(900점 만점 / 600점 만점)	TOEIC
91점 이상	637점 이상 / 348점 이상	800점 이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ajou.ac.kr
교육 목표	• 정의와 봉사를 지향하는 법률가 양성 •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법률가 양성 •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는 법률가 양성
특성화 분야	중소기업법무
장학금	• 2018학년도 등록금 수입 총액 대비 33%를 장학금으로 지급 • 2018학년도 전체장학금 중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은 80% 지급 • 장학금 종류: 복지(특별, 일반)장학, 성적우수장학, 봉사장학, 아경장학(교외) 등
교류협력	• 독일기센대학, 미국 워싱턴 대학 등 해외 11개 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 미국 워싱턴, 인디애나 대학 LL.M 과정 파견 • 국내 125개 기관과 협약 체결,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10. 4.(금) 18:00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서류접수	2019. 9. 30.(월) 10:00~10. 8.(화) 18:00까지		- 직접방문접수: 10. 10.(수) 18시까지 유효 - 등기우편접수: 10. 10.(수)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25.(금)		별도개별통지 없음
면접	2019. 11. 9.(토)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1. 29.(금)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 2020년 2월 28일 기준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19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2019.10.4.)이전 최근 2년 이내의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FL, TOEIC, TEPS에 한함)을 치르고 지원관계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이 가능한 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yonsei.ac.kr
교육 목표	Mission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글로벌 법조인의 양성
	Vision 민주적 법치사회에 기여하는 윤리적 법조인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역량있는 법조인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 법조인
	Strategy 특성화 국제화 정보화
특성화 분야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금수입 대비 30% 이상의 장학금을 50%이상의 학생들에게 폭넓게 지급 특별전형 중 경제적 약자는 등록금 전액 및 소정의 생활비 지원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14개국 35개 대학과 복수학위제도 또는 교류협정 체결 국내 76개 기관과 법무실습협약을 체결하여 실무수습 기회 제공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yu.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숙한 인격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법률전문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법률전문가 전문적이고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전문가 공익·인권 실현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
특성화 분야	공익·인권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의 70%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 등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 ※ 장학금 수혜인원 2018 - 2학기: 161명(재학생대비 77.03%), 전면장학생 70명 2019 - 1학기: 115명(재학생대비 55.02%), 전면장학생 60명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11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약체결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베트남 등)



» 전형일정

구 분	'나'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 10. 4.(금)	
서류접수	2019. 9. 30.(월) ~ 10. 7.(월)	등기우편 : 10,4(금) 소인까지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5.(화)	
특별전형 면접	2019. 11. 11.(월)	
일반전형 면접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2020년 2월까지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자
- 2019년에 실시한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공인영어능력시험에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일반전형)

TOEFL(iBT)	TEPS	TOEIC
99점 이상	700점 이상(New TEPS 386점 이상)	850점 이상

» 전형일정

구 분	'가' 군	'나' 군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09:00 ~ 10. 10.(목) 17:00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1.(금)	
면접	2019. 11. 9.(토)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2019년 시행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2017년 10월 13일 이후 공인영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19년 10월 4일)까지 성적을 제출하는 자 (아래의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TOEFL(iBT)	TEPS (~247회 시험)	New TEPS (248회 시험~)	TOEIC	G-TELP(level 2)
64점	482점	258점	600점	50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wonkwang.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법조인 : 인류애와 건전한 직업 윤리관을 갖춘 법조인 • 실천적 법조인 : 법지식과 문제해결 및 국제화 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 창의적 법조인 : 학술탐구와 응용방법의 연구로 학문발전에 기여하여 법조인
특성화 분야	의생명과학법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수혜비율 34%(2018 기준) • KCC 장학 지원 ※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대상자, 지급금액등을 결정하여 지급 ※ 성적, 가계형편, 기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등지급
교류협력	해외 8개 대학과 교류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ewha.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월한 전문 능력과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 양성 • 성평등 및 인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익에 봉사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 • 사회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
특성화 분야	생명의료법, Gender법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사회적 취약계층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 운영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로스쿨 연수 및 국제 로펌 방문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외국 로스쿨과 학생교환, 복수학위 제도 등을 운영 • 국가기관, 법무법인, 공익인권단체, 기업 등 70여개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가' 군	'나' 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 2019. 10. 4.(금) 까지		
서류접수	2019. 10. 10.(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4.(월) 14:00 예정		개별통보하지 않음
면접	2019. 11. 9.(토)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14:00 예정		개별통보하지 않음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어학성적의 경우 기본 점수 이하는 기본점수 처리하며, 지원자격 미달의 결정사유가 되지 않음

» 전형일정

구 분	'가' 군	'나' 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 10. 7.(월) (10:00~17:00)		토요일 접수 받음 공휴일, 일요일은 휴무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6.(수)		
면접	-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일반전형·특별전형 공통)

-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하거나 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여성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2017년 10월 4일 이후 실시된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TOEFL(iBT), TOEIC, TEPS에 한함)에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2019.10.7(월))까지 성적을 제출하는 자(CBT, PBT 성적 및 외국에서 응시한 TOEIC은 인정하지 않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ils.inha.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에 적합한 전문법조인 •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전문법조인 •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전문법조인
특성화 분야	물류법, 지적재산권법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우수장학금: 입학성적 또는 재학 중 성적 우수생에게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지급 • 학비보조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지급 • 조교장학금: 교수의 교육/연구를 돕는 조교로 선발된 학생에게 매달 일정액 지급 • 공로장학금: 국가나 본교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일정액 지급 • 장애학생장학금 • 국제교류프로그램장학금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16개 기관과 학술 및 실무수습 교류협약 체결 • 145개 국내외 기관과 실무수습협약 체결 후 실무수습 기회 제공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jnu.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전문가의 충실한 법적사유능력과 실무적 자질 함양 • 특화된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의지와 소양 함양 • 분화된 사회영역과 국제무대에 접근할 수 있는 소통능력 함양 • 차별·소외·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참여적 가치관 함양
특성화 분야	공익·인권법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스쿨 발전기금, 교내장학금, 광주광역시 출연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재원 • 전액장학금, 반액장학금, 수업료면제 등 장학 수혜자 확대 • 성적우수 장학금과 가계곤란자 지원을 위한 이원적 장학 제도 마련 •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경제적 곤란도에 따라 장학금 지급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대학과 학술 및 학생교류를 위한 협약 체결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등 해외 인턴십 • 정부 유관기관, 법무법인, 공익인권단체 등 국내외 100여개 기관과 협약 체결 후 실무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2019. 10. 4.(금) 18:00		인터넷접수
서류접수	2019. 10. 7.(월) 09:00 ~ 2019. 10. 8.(화) 18:00		방문 및 우편접수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1.(금) 15:00		본교 홈페이지 발표
면접	2019. 11. 9.(토)	2019. 11. 23.(토)	본교 홈페이지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4.(수) 15:00		본교 홈페이지 발표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단, 일본 소재 대학은 2020. 3. 31.(화) 이내)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019년 시행하는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공인 영어 정기시험(TOEIC, TEPS 또는 TOEFL IBT)에 응시하여 응시일과 성적취득일이 2018년 3월 1일 이후부터 원서접수마감일(2019년 10월 4일(금))까지인 성적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09:00 ~ 10. 10.(목) 18:00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29.(화) 11:00 예정	
면접	2019. 11. 9.(토)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5.(목) 11:00 예정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의 모든 지원자는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2020년 2월 말까지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응시일 기준 2017. 10. 14. 이후부터 성적 발표일 기준 2019. 10. 4. 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아래 기준 이상 취득한 자

TOEFL(iBT)	TEPS	NEW TEPS	TOEIC
84점 이상	594점 이상	322점 이상	750점 이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s://lawschool.jbnu.ac.kr/
교육 목표	전문성을 갖추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글로벌 법조인 양성 • 전문성: 체계적이며 실천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으로서의 능력 배양 • 봉사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 • 글로벌리티: 동북아시아와 국제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글로벌리티 추구
특성화 분야	동북아법
장학금	• 총 정원의 50%이상 교내 장학 지원 •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을 통한 외부 장학 지원 ※ 장학금은 매학기 장학생 선발 위원회에서 성적, 가계형편, 기타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등지급
교류협력	•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등의 해외 실습기관 • 국내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 화우, 광장, 태평양, 지평, 지성, 울촌 등 30여개 로펌 • 개인법률사무소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20여개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2019.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09:00 ~ 2019. 10. 8.(화) 18:00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01.(금) 14:00	
면접	2019. 11. 9.(토)	특별전형 2019. 11. 15(금)
		일반전형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년 3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2019년도에 실시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공인 영어 성적(TOEFL, TOEIC, TEPS, NEW TEPS)을 국내에서 취득한 자 【단, 일본어(JPT), 중국어(HSK) 성적으로 대체 가능함】

※ 상기 이외의 어학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jejunu.ac.kr
교육 목표	•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 Glocalization을 선도하는 실천적인 법률가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적인 법률가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법률가
특성화 분야	국제법무(국제투자·거래)
장학금	• 등록금 총액 대비 38%이상 장학금 지원(2019. 1학기 기준) • 합격자 중 1차 등록자 전원에게 첫 학기 장학금 지급(등록금 범위 내 일부 지원) • 이종수혜 장학제도 운영 ※ 장학금은 매학기 학사지도위원회에서 대상자,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하며 성적, 가계형편, 기타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등 지급
교류협력	• 해외 선진 로스쿨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 로스쿨과의 학술교류 • 30여개 기관과 협약체결에 따른 실무 수습 기회 제공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9:00 ~ 10. 4.(금) 18:00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서류접수	2019. 9. 30.(월) 9:00 ~ 10. 8.(화) 17:00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0. 31.(목)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면접	2019. 11. 9.(토) 9:00	2019. 11. 16.(토) 9:0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예정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2020년 1·2월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도에 실시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 백분위가 각각 200상이면서 백분위 평균이 30 이상인 자
- 공인영어성적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2019.10.4.)기준 발표되고 해당일 기준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의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TOEFL(IBT)	TEPS	NEW TEPS	TOEIC
75점 이상	616점 이상	334 이상	710점 이상

※ 시각장애(중증) 또는 청각장애(중증)인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므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을 참조할 것.

CAU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cau.ac.kr	
교육 목표	다양한 법실무 속에서 유능한 참 법률가의 인재상을 구현해 냄	
	유능한 법률가상	참 법률가상
	1. 실천적 문제해결사	1. 자유와 정의의 수호자
	2. 창의적 사회공학자	2. 올바른 판단의 소유자
	3. 순발력 있는 협상전략가	3. 헌신적인 법률봉사자
특성화 분야	문화법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적우수,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장학제도 마련 미국 인디애나로스쿨 LLM 복수학위과정 장학지원프로그램 운영 재학기간 중 최우수인재, 성적, 사회적 취약계층, 각종 실습 및 국내외 연수 우수자, 모의재판 및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봉사우수자 등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하는 차별화된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본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 심사 선발)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약 체결, 공동학위 프로그램 및 해외인턴십 실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교류 협약 체결 국내 우수 법무법인 및 기관과 협약 체결, 실무수습 기회 제공 	



홈페이지	http://law.cnu.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봉사,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 인류와 국가에 기여하는 창의적 융합형 인재양성 충실한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윤리적 법조인의 양성을 통해 인류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 특화된 공공법무, 지적재산권 법률교육과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특성화 분야	지적재산권법 분야
	장학금	재학생 등록금 30%이상 장학금 지원 ※ 장학금은 매학기 대상자,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 소득분위, 성적, 기타 여러 요건을 고려.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급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협약체결한 9개 교육기관과 충남대학교가 체결한 11개 이상의 해외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법학교육 및 학술교류 프로그램 시행 정부기관 등 100개 이상의 유관기관과 현장학습을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실무수습 과정 지원 	



» 전형일정

구 분	'나'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cau.ac.kr) (주)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서류접수	2019. 9. 30.(월) 09:00 ~ 10. 7.(월) 18:00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시간이내 도착분에 한함.) 우)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법학관 6층 610호)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1.(금) 14:00(예정)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cau.ac.kr)
면접	2019. 11. 9.(토) ~ 11. 10.(일)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추후 확정)
최초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14:00(예정)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cau.ac.kr)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시행한 정시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인영어시험성적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TOEFL(CBT/PBT/IBT)	TEPS	NEW TEPS	TOEIC
197/530/71점 이상	625점 이상	340점 이상	700점 이상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원서접수	2019. 9. 30.(월) 9시 ~ 10. 4.(금) 18시	
서류접수	2019. 9. 30.(월) ~ 10. 7.(월) 18:00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1.(금) 14:00 이후	
면접	2019. 11. 9.(토)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5.(목) 14:00 이후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2020년 2월말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공인영어시험을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과실범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재학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자격 여부 결정
- 출신학과와 계열 및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chungbuk.ac.kr/
교육 목표	진리·정의·개혁 • 창조적인 지적 탐구심의 유발과 실무와의 연계 • 원리적, 체계적 사고능력의 함양을 위한 법학교육의 지향 • 다양한 전문성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 • 지역사회의 법률 수요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특성화 분야	과학기술법
장학금	• 교내 등록금 재원 장학금 • 국가장학금 • 법인장학금 • 해외 로스쿨 공동학위 장학금 • 해외 로스쿨 방문 및 견학 장학금
교류협력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과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 • 자매 협정을 맺은 해외 로스쿨 등 방문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80여개 기관과 협약 체결 후 실무수습 기회 제공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hufl.ac.kr/
교육 목표	전문적이고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법조인 양성 • 논리적, 체계적 법학이론교육 • 자주적, 창의적 실무능력 배양 • 건전한 법조윤리관 확립 • 국제적 식견 제고
특성화 분야	국제지역
장학금	장학금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지급 •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고려하여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성적장학금 지급
교류협력	• 해외 14개 대학(미국, 영국, 중국, 독일 등)과 교류협약 체결 • 검찰, 법원, 로펌, 전문기관과 실무수습 기회 제공 특히 해외 현지 로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실습 가능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09:00 ~ 10. 8.(화) 18:00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1.(금)	
면접	2019. 11. 9.(토)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졸업예정자는 2020년 2월말까지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학사과정 성적(백분율 81.00 미만은 지원 불가) 제출 가능자
- 2019년에 실시하는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 공인영어시험에 응시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단, 2017. 11. 1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서류 제출 마감기한(2019. 10. 8.)내에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TOEFL(iBT)	TOEIC	G-TELP	TEPS	newTEPS
85점 이상	750점 이상	level 2 기준 69점 이상	596점 이상	323점 이상

»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류접수	2019. 9. 30.(월) 10:00 ~ 10. 7.(월) 17:00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10.7(월)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6.(수) 예정		
면접	2019. 11. 9.(토) ~ 11. 10.(일)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예정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공통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0년 2월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고 성적을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실시된 공인 영어능력 평가시험(FLEX, TOEIC, TOEFL, TEPS)에서 아래 표의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

TOEFL(iBT)	FLEX		TOEIC	TOEFL(iBT)	TEPS
	1500만점	1000만점			
최소기준점수	811점	541점	700점	79점	555점 (개정TEPS 300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hanyang.ac.kr/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 • 기본적 지식과 기술에 충실하고 전문화·실용화·세계화를 추구하며 봉사를 중시하는 법학교육 실시 • 다양한 분야의 법률 수요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생활법조인, 기업법무법조인, 국제법무법조인, 지식재산법조인 및 공익법무법조인 양성
특성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소송 : 국제소송과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동할 법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 지식·문화산업 : 문화산업, 정보미디어산업, 생명공학산업분야에서 활동할 법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 공익·소수자인권 : 국내 인권관련 기관에서 활동할 법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환경을 우선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특별전형 포함) •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및 중국 등 세계적 대학과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실시 • 법원, 검찰, 국내 우수 로펌 및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실무수습 실시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비 고
원서접수	2019. 9. 30.(월) ~ 10. 4.(금)		
서류접수	2019. 9. 30.(월) ~ 10. 7.(월)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1. 6.(수) 14:00 예정		3.0배수 내외 선발
면접	2019. 11. 16.(토)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6.(금) 14:00 예정		

※ 기본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지원자격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특별전형 상세 지원자격은 모집요강 참조)

- ①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② 2020.02.28.까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③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공인영어 정기시험(TEPS, TOEIC 또는 TOEFL iBT)에 응시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는 자
 - 2017.10.08.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TEPS와 TOEIC은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 2019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변호사시험

시험 목적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증

응시 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단, 5년 내 5회만 응시 가능

시험 시기

매년 1월, 휴식일(1일)을 포함하여 5일간 실시

시험 과목

필수과목	선택형/사례형/기록형 • 공법(헌법, 행정법) •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사례형(택1)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법조윤리	선택형 • 8월 중 별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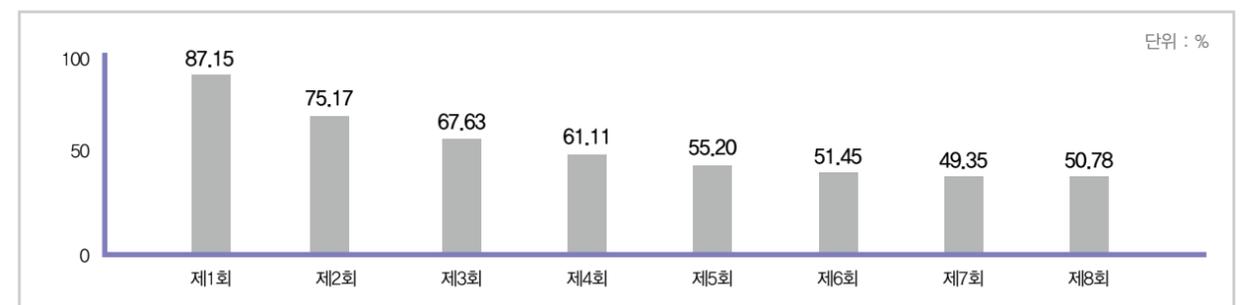
합격 결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참고] 제8회 변호사시험(2019년 시행) 합격자 통계



[참고]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 연수 및 검사, 재판연구원, 법관 임용



» 변호사 연수

•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변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한다.

- ①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증서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 실시
 -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법무법인, 국가기관, 국제단체 등
- ②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연수(4~10월) 수료
 - 변호사 개업실무를 비롯해 전문실무 분야까지 총 50여개 강좌 개설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증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사건의 단독 또는 공동수임 제한

» 검사, 재판연구원, 법관 임용

구분	검사	재판연구원	법관
임용자격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법연수원, 법전원 수료 예정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연수원, 법전원을 수료/졸업하고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전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한 사람
임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전형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8월) • 실무기록평가 및 역량평가(10~11월) • 임용후보자 통보(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9월) • 필기, 인성검사(9월) • 면접(11월) • 최종 합격자 발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6월) • 실무능력평가 면접(7월) • 최종면접(8월) • 최종 합격자 발표(10월)

로스쿨 졸업생의 연도별 취업 현황

» 연도별 취업률 현황

구분	'15년(4기)	'16년(5기)	'17년(6기)	계
변호사시험 합격자	1,565	1,581	1,600	4,746
취업 대상자	1,540	1,502	1,396	4,438
취업자	1,390	1,375	1,256	4,021
취업률(%)	90.3	91.5	90.0	90.6

•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들은 졸업 후 6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받게 되며, 평균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분야 현황

기관	취업인원	기관	취업인원
법원	72	국가기관	48
검찰	36	지방자치단체	4
군법무관	74	공공단체	9
공익법무관	123	공기업	18
법무법인	526	사기업	72
공동법률사무소	115	기타	28
단독사무소	131	총계	1,256

• 졸업생들은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해 법조인의 뜻을 펼치고 있다.
 • 특히 해가 갈수록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의 진출이 과거에 비해 대폭 확대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 진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청운 판사

“판사는 다수결에 의한 권력이나 수시로 변화하는 여론에 좌우됨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소수의 편에 서지 않더라도 다수결로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들이나 정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데, 이를 통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함혜란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이 임명하는 위촉계약직이고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고등법원별로 선발합니다. 해당 지방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가 되면 오직 그 지방법원의 형사재판 국선변호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월평균 30여 건의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사선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역할과 동일한 일들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이용해 변호사

“저는 미디어산업과 관련된 10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문화콘텐츠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팀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D, 작가, 감독, 가수, 배우, 영화제작자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콘텐츠 제작컨설팅, 방송포맷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상생협력, 미디어기업 투자파문, 미디어 업계 제작환경 개선 등 문화산업계가 맞닥뜨리는 법률적 쟁점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호 이형찬 변호사

“수익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물과 관련된 사건만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하고, 각종 법적 자문에도 응합니다. 다만 법무법인에서 농림축산식품, 환경, 의약 분야의 사건이 있다면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함께 회의를 하며 고민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행은 다른 변호사가 하더라도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김민형 변호사

“정부법무공단은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하고 있고 고문을 맡기는 기관도 많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행정, 사회문화, 국토산업부, 조세팀 등 의뢰기관의 업무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분류된 업무에 따라서 팀이 나뉘지는데, 제 경우에는 1년차 때는 국토산업부팀에 있었고 현재는 사회문화팀에 있습니다. 담당 기관들의 송무, 자문 등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해당 기관의 주된 업무와 관련 법령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더욱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광장 박수연 변호사

“광장은 변호사 개개인이 다양한 전문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인데, 저는 지적재산권팀과 헬스케어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약품 특허 관련 분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팀에서도 지적재산권팀처럼 다양한 유형의 소송(민·형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과 더불어서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규제 이슈와 관련한 법적 자문을 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이 의뢰한 질의에 대하여 법적인 타당성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고객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조 또는 대행하기도 합니다.”



한국맥도날드 정호선 변호사

“사내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소송과 자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고 작은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의 다른 모든 부서에서 의뢰하는 내부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팀에 소속되어 다른 부서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반부터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여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계약서를 검토하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20대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이아영 변호사

“보좌진은 입법에 이르는 복잡한 정치 과정을 온 몸으로 부대껴 가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보좌진의 업무는 각 의원의 의정활동 기초, 처해있는 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여당인지 야당인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상임위는 어디이며 직업적 출신 배경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그를 돕는 보좌진의 업무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300개의 의원실은 300개의 서로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MBC ARTs 이하림 변호사

“MBC 아트는 문화방송의 자회사로 MBC에서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세트, 의상, 분장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저작권, 소유권 등의 문제를 비롯해 하도급 업체들과의 계약 및 분쟁이 잦은 편입니다. 저는 계약 단계부터 사전 검토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법률 검토를 맡고 있으며, 사후 분쟁 소송에도 관여해 협의·합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역할이고,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거나 합의, 협의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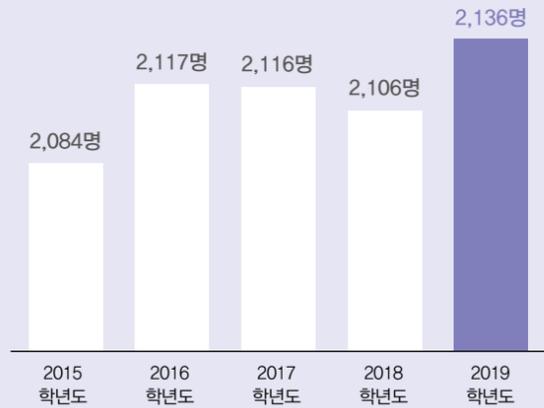
서울중앙지검 김석순 검사

“검사는 형사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수사부터 시작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재판에 참여하며, 피고인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구하고 집행하죠. 제기한 공소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수사를 해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할 때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검사의 임무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검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결국 정의 실현을 뜻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 사법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

» 전체 합격인원



» 특별전형 입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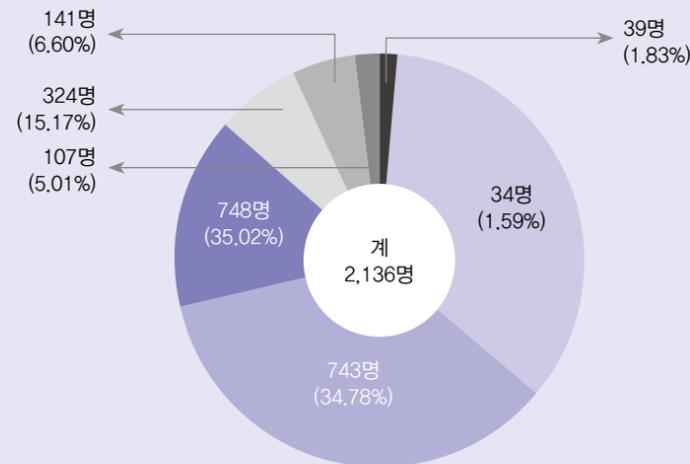
※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칙 등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성별



» 연령별

- 22세 이하
- 23~25세
- 26~28세
- 29~31세
- 32~34세
- 35~40세
- 41세 이상



» 자교출신 VS. 타교출신

자교출신 478명(22.38%), 타교출신 1,658명(77.62%)

» 법학사 VS. 비법학사

법학사 394명(18.45%), 비법학사 1,742명(81.55%)

»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229	135	364	22	8	30	251	143	394	18.45
사회계열	220	233	453	21	22	43	241	255	496	23.22
상경계열	281	186	467	19	9	28	300	195	495	23.17
인문계열	153	193	346	18	14	32	171	207	378	17.70
공학계열	84	22	106	6	0	6	90	22	112	5.24
자연계열	37	32	69	5	2	7	42	34	76	3.56
사범계열	28	41	69	1	3	4	29	44	73	3.42
의학계열	10	4	14	1	1	2	11	5	16	0.75
예체능계열	4	8	12	0	1	1	4	9	13	0.61
약학계열	7	3	10	0	0	0	7	3	10	0.47
신학계열	6	1	7	1	0	1	7	1	8	0.37
농학계열	4	0	4	1	0	1	5	0	5	0.23
기 타	26	29	55	3	2	5	29	31	60	2.81
계	1,089	887	1,976	98	62	160	1,187	949	2,136	100

» 최종학력별

대학교 졸업자가 1,198명(56.09%), 대학교 졸업예정자(2019년 2월)가 938명(43.91%) 합격하였다.
대학교 졸업자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71명, 박사학위 소지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

직업을 보면 의사 8명, 약사 6명, 기자 5명, 간호사 4명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회계사 13명, 변리사 8명, 노무사 6명의 전문자격 소지자도 확인되었다.(직업 및 전문자격 현황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경쟁률

※ 원서접수기간 : 2018. 10. 1(월), 09:00 ~ 5(금), 18:00

대학명	모집정원							지원현황							경쟁률(%)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7	3	40	40				193	21	214	214				5.22	7.00	5.35	5.35
건국대	37	3	40				40	123	8	131				131	3.32	2.67	3.28				3.28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213	23	236	215	15	230	466	3.87	4.60	3.93	3.84	3.75	3.83	3.88
경희대	55	5	60				60	422	48	470				470	7.67	9.60	7.83				7.83
고려대				111	9	120	120				361	27	388	388				3.25	3.00	3.23	3.23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336	25	361	316	21	337	698	9.08	8.33	9.03	8.54	7.00	8.43	8.73
부산대	65	5	70	46	4	50	120	198	18	216	137	11	148	364	3.05	3.60	3.09	2.98	2.75	2.96	3.03
서강대	19	2	21	18	1	19	40	130	5	135	151	7	158	293	6.84	2.50	6.43	8.39	7.00	8.32	7.33
서울대	139	11	150				150	440	55	495				495	3.17	5.00	3.30				3.30
서울시립대	45	5	50				50	236	30	266				266	5.24	6.00	5.32				5.32
성균관대				111	9	120	120				343	22	365	365				3.09	2.44	3.04	3.04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92	14	206	219	18	237	443	8.35	7.00	8.24	9.52	9.00	9.48	8.86
연세대				111	9	120	120				283	31	314	314				2.55	3.44	2.62	2.62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215	26	241	230	19	249	490	6.72	8.67	6.89	6.97	9.50	7.11	7.00
원광대	30		30	25	5	30	60	277		277	216	39	255	532	9.23		9.23	8.64	7.80	8.50	8.87
이화여대				93	7	100	100				383	32	415	415				4.12	4.57	4.15	4.15
인하대	21	4	25	25		25	50	138	26	164	168		168	332	6.57	6.50	6.56	6.72		6.72	6.64
전남대	51	9	60	60		60	120	208	42	250	266		266	516	4.08	4.67	4.17	4.43		4.43	4.30
전북대	37		37	37	6	43	80	238		238	241	40	281	519	6.43		6.43	6.51	6.67	6.53	6.49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76	6	82	60	3	63	145	4.22	3.00	4.10	3.16	3.00	3.15	3.63
중앙대	46	4	50				50	264	27	291				291	5.74	6.75	5.82				5.82
충남대	50		50	43	7	50	100	162		162	143	21	164	326	3.24		3.24	3.33	3.00	3.28	3.26
충북대	40		40	25	5	30	70	212		212	131	15	146	358	5.30		5.30	5.24	3.00	4.87	5.11
한국외대	26	4	30	20		20	50	126	13	139	107		107	246	4.85	3.25	4.63	5.35		5.35	4.92
한양대				92	8	100	100				312	35	347	347				3.39	4.38	3.47	3.47
합계	826	67	893	1,022	85	1,107	2,000	4,206	366	4,572	4,475	377	4,852	9,424	5.09	5.46	5.12	4.38	4.44	4.38	4.71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1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법전문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 정보공개 등에 관한 그간의 개선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부모·친인척의 실명, 직장(직위, 직종)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조치하며, 특히 광의적 직종명 기재도 감점 또는 실격조치하도록 하였다.

구분	기재 예시	불이익 내용
실명 등 특정 가능한 정보 기재 시	부모 친인척의 실명 기재 ex)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실격조치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ex)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ex)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실격조치
광의적 직종명 기재 시	ex)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ex)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ex)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실격 또는 감점조치

- 기재 예시는 단순 예시이며, 사실과 무관함
단,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는 개별 대학에서 판단하여 불이익 조치
- 기재금지문구 및 기재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대학 모집요강 참고

여기서 잠깐!

Q.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나요?

A.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정량평가(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어학성적 등)의 요소별 환산방식과 실질반영률 및 정성평가(서류, 면접)의 평가항목을 공개하도록 하여 선발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서류 평가 시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면접평가 시 가(假)번호 부여, 외부면접위원 위촉, 무(無)자료 면접 실시 등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꿀팁



권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한 가지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부 전공이나 로스쿨 지원 전까지의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실무 경험이나 인턴 경험은 전혀 없었고, 지원자들 사이에서 '특이 정성'으로 불리는 독특한 경력도 마땅히 없었다. 따라서 스스로를 '이미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포장하기보다는 '로스쿨에서의 공부를 통해 능력 있는 법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소개서가 화려한 스펙의 나열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래의 로스쿨 학생' 혹은 '미래의 법조인'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자기소개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다른 친구들과처럼 스터디를 할 엄두는 내지 못 했지만 시사 이슈와 뉴스를 눈여겨보면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해 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인지 고민했다. 한 쪽의 의견만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중도를 지키면서 최소한의 포기할 수 없는 인간성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면접시험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사회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지만 면접에서 답변을 하면서 많이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의 답변이 정답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보는 시각과 그에 대한 접근 방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



김민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수호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신이 추구하는 법조인의 모습과 이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역량과 이에 부합하는 학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대 학생의 경우 역대 입학자들 중 해외대 학생들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동입학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정량지표가 부족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량 점수를 바탕으로 '어떻게' 로스쿨에 입학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나의 경우엔 학점 산출 기준이 한국과 다른 해외 대학교 졸업생이기 때문에 학점이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을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학부 때 받았던 성적장학금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박소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엑셀을 이용해서 살아온 시간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내 삶에 있어서 굵직하거나 의미 있는 사건들을 연도별로 열거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묶어 봤는데 자기소개서 작성이 보다 수월해졌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막연해서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다. 또 면접을 준비할 때 롤플레이팅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그럴 때는 영상으로 면접하는 모습을 촬영해 볼 것을 추천한다. 자신이 면접에 응하는 모습을 보면, 있는 자세라든가 버릇, 태도 등 면접 전반에 임하는 모습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 개별입학설명회와 재학 중인 선배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입학설명회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항목별 분량을 조정하였고, 재차 강조해야 할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법전문에 재학 중인 선배들로부터 학사시스템이나 특장점과 같이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를 지원동기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면접의 경우 스터디에서 일주일 내내 모의면접을 했던 것과 동영상 촬영으로 스스로의 답변 모습을 확인하며 교정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전남대학교 면접의 경우 출제되는 문제가 시중 교재에서 다루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면접 비중 또한 높은 편이 아니라서, 부담 갖지 않고 차분히 임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아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지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화제판결'들을 모아 놓은 신문 기사들을 틈틈이 챙겨보았는데, 그러한 판결 자체가 면접에서 출제된 것은 아님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법학을 접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판결들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나름 고민해 봄으로써, 면접장 내에서 제시받은 낯선 주제에 대해서도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면접의 경우 큰 틀에서는 소위 '리얼마인드'를 평가하는 질문들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 공부를 해야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니기에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최대한 자신감 있고 분명한 어조로 논리적인 답변을 이어 간다면 면접 과정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자기소개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로스쿨 선배들은 물론이고 공대, 의대에 다니는 분들에게도 침식을 부탁했다. 그들은 나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퇴고했다. 또 로스쿨 입시 면접에서는 모르는 주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순발력이 중요하다. 어떤 주제에 대해 논리를 펼쳐나갈 때 단순히 자신의 논리만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에 대한 반박과 다시 그 내용을 반박하는 것까지 덧붙여 답하는 것이 좋다.



유정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은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에서 하나의 주제를 고른 뒤 모의면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힘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되 무리한 논리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정량평가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대로라면 자기소개서의 영역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개성이 강해서 위험 부담이 있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오래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진중한 자기소개서를 쓰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문장의 조응관계를 유심히 살피고, 표현에 있어 비문이나 유행어가 있지는 않은지 살폈다. 단순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과목, 학점을 꼼꼼히 적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분명히 적었다. 답답하고 막막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서적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법전원 입학 자기소개서는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형식이나 내용을 표절하여 다른 지원자들과 비슷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오래된 자기소개서의 경우 절대로 나타내면 안되는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정보(진학 동기가 된 부모님의 직업 등)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김옥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성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트 시험 이후 스터디를 조직하여 서로의 자기소개서를 돌려가면서 첨삭을 받았고, 면접도 실전처럼 진행한 후 구성원의 피드백을 통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습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처음보다 한층 자연스러운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더 진솔하고 풍성한 스토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하는 교수님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 관련 책자보다는 신문 읽기를 추천한다.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내용은 바로 찾아보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 면접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의 경우 익숙한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조금 더 생각한 후 답할 것을 권한다. 잘 알더라도 시간을 갖고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정리한 후,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면접관 분들께서는 예상보다 학생들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잘 기다려 주신다.



김선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우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의 경우 기출문제를 풀어 보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지문에 나오는 단어의 개념과 범위, 유사하지만 다른 단어와의 차이,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예민하게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추리논증은 논리학 문제, 논증 문제, 수리추리, 논리게임 문제 모두 풀이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지만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익힌 후 이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면접의 경우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면서 차분히 준비해 놓을 것을 권한다.

면접을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출문제'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중에 판매하는 서적을 통해 면접을 준비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 제출 후 면접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학교마다 출제유형과 선호주제가 다르다. 따라서 지원하지 않는 학교의 기출을 풀거나 일반적인 토론주제를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학교의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터디를 구성하여 지원학교의 기출문제, 시험방식을 적용하여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스터디원과 친분이 있더라도, 면접 연습시간만큼은 진지하게 임할수록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강유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평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기적으로 학창시절부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미리 법학공부를 선행하기를 권한다. 법전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을 꿈꿨다면 법에 관심이 있을 테니, 관련 서적을 읽어 보거나 법률사무소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현장을 경험하면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지식이 쌓이기 마련이다.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다가 로스쿨에 입학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로스쿨 입시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늦었다(웃음). 스펙을 쌓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것이다. 모의고사를 본 후 이 실력이면 어느 학교를 갈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스펙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매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게 되기가 쉽다. 입시에서 스펙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 이미 주어진 것일 수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만큼은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입학을 위해 준비하는 한 순간 한 순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비전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등 입시과정에서 성적과 스펙으로 환원할 수 없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단기적 입시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로스쿨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상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지원상 25개 로스쿨 학생의 입학수기를 모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로스쿨 창>에서 더 많은 입학수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ook



법학적성시험 안내서 L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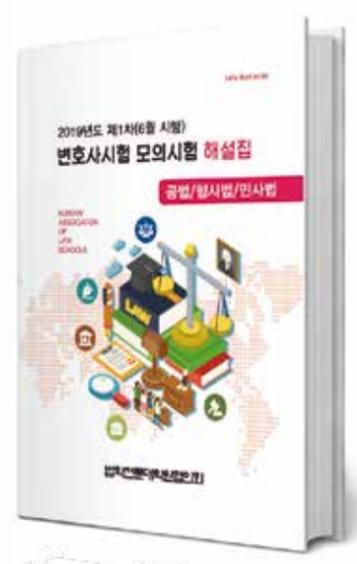
법학적성시험 출제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시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직접 기획하고 집필한 공식 안내서. 법학적성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세부 역량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영역의 문항 유형 및 문항 해결의 원리와 방법을 엄선된 예제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선배들이 알려 주는 공부 팁을 수험생 눈높이에 맞게 수록하여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할 때는 물론 추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할 때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저 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 판 사	에피스테메
판매가격	19,000원
판 매 처	전국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

2019년도 제1차(6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

지난 6월에 시행된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영역별 문제와 해설을 담았다. 문제별로 정답률을 수록해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역별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작대상	공법, 형사법, 민사법 - 선택형/사례형에 한함
판매가격	2019년도 제1차 - 단행본(10,000원) 택배비 4,000원(단, 4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신청방법	상시주문 1. 교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lawschool@leet.or.kr) 송부 2.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303-018484 삼영문화사 이준규)로 입금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2019년 8월 30일(금) ~ 31일(토) 11:00~18:00 |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서울 성동구 소재)

▶▶ 특별전형/지역균형인재 선발

- 각 교 입학정원의 7% 이상 선발
-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3년간 전액장학금 지급 (학교별 상이)
-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인원 : 1,467명 (2009-2019년)
- 지방소재 법전문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10-20%)

▶▶ 높은 장학금 혜택

- 법전문 전체 재학생의 57.6% 장학금 수혜
-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4.7% ※ 2018학년도 기준
- 2018년 취약계층 1,019명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3구간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 지급 ※ 2018년 기준

▶▶ 최상의 교육과정 및 편의시설

- 이론과 실무를 융합시킨 종합적인 교육 커리큘럼
- 강의실, 모의법정, 전용도서관, 전용영양실, 기숙사, 휴식 공간 등 교육/편의시설 마련

주최 및 참여교

- 주 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참 여 교 :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로그램

- 학교별 상담부스 운영, 1:1 개별상담 등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사항 안내
- ※ 설명회 기간 중 상시운영

관람 방법

- 무료 입장
- 체육관 출입구 앞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책자, 기념품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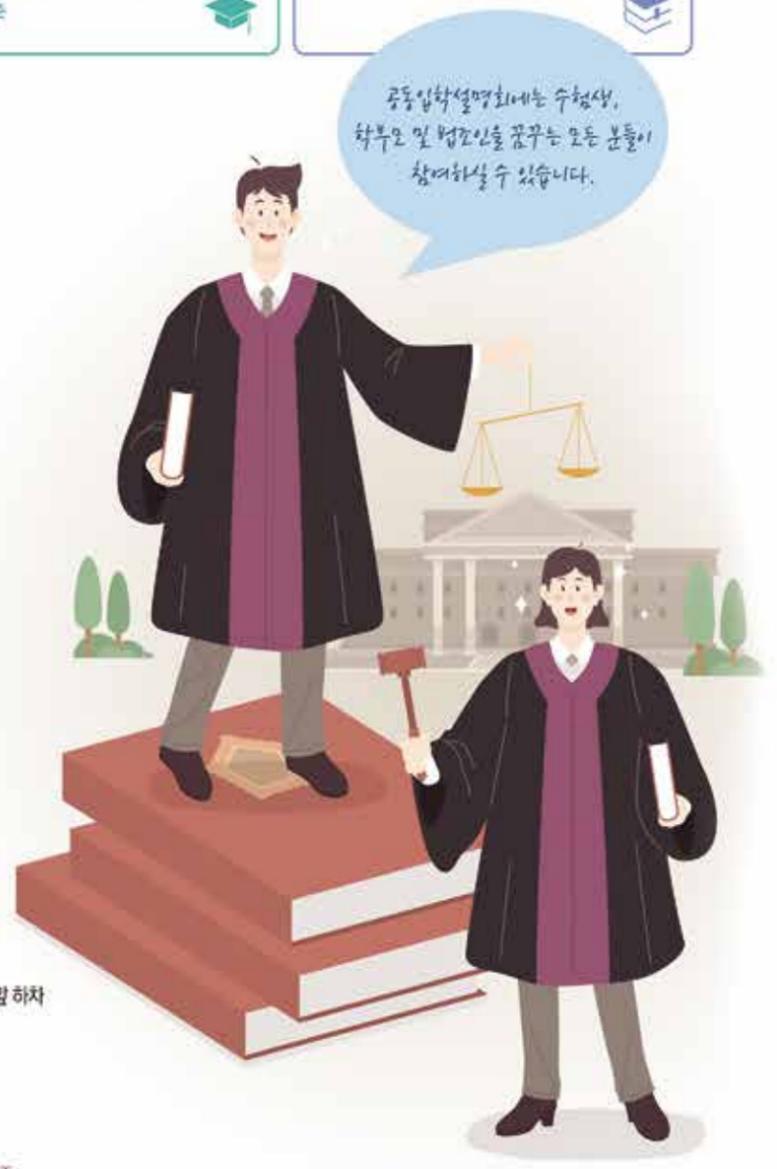
교통편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 ※ 동문에서 가깝습니다.(동문에서 30M)
-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하차 후 2번 출구(도보 10분)
- 버스 이용시
4211 한양대동문앞 하차 / 121,302,2012,2014,2016,2222 한양대 정문앞 하차
- ※ 차질 이용시 교내 주차게이트에서 주차권 발급 후 입차(유료)
- ※ 행사장 주변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EL 02)752-2036, 2037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 참조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www.khls.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lawschool.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ewha.ac.kr/



인하대학교
http://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www.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